

# 청송

재 중 조선인 총련합회  
旅中朝鮮人总联合会

2026년

04

루게:25

<http://www.lzchongsong.com>



인원향기



조선화장품무역회사



투명비누



효능: 화장용 미안비누로서 피부에 자극이 전혀없고 보습 및 살균효과가 높으며 주름을 방지하면서도 피부를 부드럽게 하여준다.

# 차례

## CONTENTS

### 혁명활동소식

- 1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왕의동지를 접견하시였다
- 2 ---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포병구분대들사이의 포사격경기 진행
- 4 --- 구축함 《최현》호에서 무기체계시험들이 진행
- 5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 장갑무기연구소에서 조직한 시험을 참관하시였다
- 5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출력탄소섬유고체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하시였다
- 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업을 앞둔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여러 봉사시설을 돌아보시였다
- 8 ---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송엄히 거행

### 총련합회소식

- 12---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 13---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경축행사 진행
- 21--- 4월의 봄명절에 참가한 공민들의 반향
- 23--- 당 제9차대회소식에 접한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의 반향
- 24--- 조선민족의 녀을 대를 이어
- 25--- 독서는 삶을 빛나게 한다

### 조국소식

- 2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4돐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
- 30--- 년대와 세기를 이어 울려퍼지는 위인찬가, 친선의 노래 제34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
- 31--- 전국의 대학, 학교들에서 2026년 새 학년도 시작, 개학모임 진행
- 33--- 평양국제관광기념품 및 건강제품전시회 개막
- 34--- 2025년 2.16과학기술상, 자연과학상, 기술혁신상,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증서, 최우수발명가상수여식 진행
- 35--- 제29차 전국료리축전 진행
- 35---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다용도유기성폐수정화제 개발도입
- 36--- 국방과학연구기관들 중요무기체계들에 대한 시험 진행
- 36--- 전국적으로 수유나무림개조사업 전개
- 37--- 호평받는 《가정료리수첩》

## 동포소식

- 38--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재일동포들 뜻깊게 경축
- 39--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었다
- 40--해립시 해풍조선족로년협회 성립 40주년 경축행사 열려
- 40--빈손으로 시작해 39년 정성으로 꽃피운 두번째 인생
- 43--중흥촌, 단결의 힘 모아 진흥의 청사진을 그린다

## 중국소식

- 45---4월부터 이런 새 규정 우리 생활에 영향 미쳐!
- 46---의무교육법 실시 40주년! 9년 의무교육 공교를 96.1%로 향상!
- 46---네 부문, 2026년 쌀 최저구입가격 공포
- 47---불가피하게 장정길에 오른 중앙홍군

## 조종왕래

- 5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왕의동지와 회담
- 51---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일행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꽃바구니 진정
- 51---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업적토론회 중국에서 진행
- 52---金燕光总领事同领区侨校教师座谈

## 국제소식

- 53---호르모즈해협,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해상 석유 수송 요충지
- 55---일본의 무력증강책동을 규탄
- 55---로씨야태평양함대 중국남해수역에서 군사훈련 진행
- 55---이스라엘호전광들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공격 계속 확대
- 56---门捷列夫

## 상식

- 58---창 조 리
- 61---벨 라 루 씨
- 62---아라비아수자
- 63---단어발음에서의 말소리변화

## 련재소설

- 65-- 장편소설 립 껍 정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왕의동지를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4월 10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인 왕의동지를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국제부장인 김성남동지가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아군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화춘영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왕의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신 후 동지적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석상에서 왕의동지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가 김정은동지께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습근평동지에게 보내는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것을 부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중량국이 공동의 리익수호와 쌍무관계의 다방면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러급에서의 태왕과 접촉을 보다 심화시키며 호상지지와 협력을 강화해나가는것이 국제적인 현 지정학적형세와 전망적인 두 나라 전략적리익의 견지에서 중요하다는데 대해 언급하시고 호상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정세문제들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피력하시였다.

왕의동지는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조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사이의 상

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중요한 공동인식에 따라 새로운 발전국면을 맞이한 중조친선 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훌륭히 발전시키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친선관계를 가장 귀중히 하고 최우선적으로 중시하며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려는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확인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는 《하나의

중국》원칙에 립각하여 나라의 령토완정을 실현하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건설을 위한 중국당과 정부의 모든 대내외 정책들을 전적으로 지지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이 사회주의현대화와 민족부흥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로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하시면서 왕의동지와 뜨거운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끝)

##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포병구분대들사이의 포사격경기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4월 15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직한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대련합부대 관하 포병구분대들사이의 포사격경기를 참관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성기동지를 비롯한 국방성 지휘관들,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대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포사격경기는 가상적인 전술적환경에 맞게 설정한 경기규정에 따라 진행되였다.

사격경기에 참가한 포병구분대들은 싸움준비완성의 드높은 열망을 안고 만반으로 다져온 자기들의 전투적인 사격술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철저한 립전태세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기에서는 수도방어군단관하 포병구분대가 영예의 1등을 쟁취하였다. 조선인민군 제 4군단이 2등을, 제 2군단이 3등을, 제 8군단이 4등을, 제 3군단이 5등을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포사격경기가 우리 포병들의 훈련열의를 고조시키고 전투적위력을 비상이 강화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포병무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작전과 전투 나아가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당의 포병중시, 포병강화방침을 받들고 포병싸움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아가야 한다는 데 대하여서와 새로운 국방발전 5개년계획기간안에 포병무력현대화에 관한 당중앙의 전략적구상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과 같이 국가적 명절들을 비롯한 주요계기들에 군대 각급에서는 훈련경기들을 자주 조직하는것이 좋다고, 인민군대는 첫째도 둘째도 싸움준비완성을 위한 훈련밖에 몰라야 한다고, 그것이 곧 위대한 수령님의 강군건설념을 풀어드리는 길이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며 군대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훈련경기에서 우승을 쟁취한 구분대에 상장과 메달과 휘장이 수여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우승한 해당포병구분대 군인들을 만나시고 높은 전투력을 치하하시며 군관, 병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경사스러운 4월의 봄명절에 위대한 령장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 따뜻한 축복을 받아안은 인민군지휘관들과 포병들은 포병전력강화의 비약적인 성과로써 당중앙을 결사옹위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주권과 존엄, 조선인민군의 명예를 굳건히 수호해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짐하였다. (끝)



## 구축함 《최현》 호에서 무기체계시험들이 진행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최현》 호에 대한 작전운용평가시험체계안에서 전략순항미사일과 반함선미사일시험발사가 4월 12일 또다시 진행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 국방부문 지도간부들과 해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시험발사를 참관하시었다.

해당 시험발사는 함선의 무기통합지휘체계 발사조종계통을 검열하고 해병들을 미사일화력복무동작에 숙달시키는 것과 함께 개량된 능동형반장애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목표명중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구축함 《최현》 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와 반함선미사일 3기가 시험발사되었다.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7,869~7,920s 간, 반함선미사일들은 1,960~1,973s 간 조선서해상공에 설정

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목표를 초정밀명중정확도로 타격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새로 건조하는 구축함 3호, 4호함의 무기체계구성심의안을 보고받으시고 중요결론을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 국방과학분야에서 이룩한 각이한 성과들로 하여 우리 군대의 전략적행동의 준비태세는 질적으로 강화되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력하고 신뢰할수 있는 핵전쟁억제력을 끊임없이, 한계없이 확대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불변한 국가방위로선이며 최종대선결과업이라고 하시면서 핵전쟁억제력구성에서 기본으로 되는 전략 및 전술적공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대응태세를 제고하며 정교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과업들을 밝히시었다. (끝)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 장갑무기연구소에서 조직한 시험을 참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 장갑무기연구소가 조직한 땅크능력평가시험을 참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당 시험이 우리의 신형주력땅크가 얼마만큼 우수한 땅크인가를 설명이 아닌 실제적행동으로 보여준 계기, 얼마만큼 신뢰할수 있는 전투수단인가를 잘 알게 해준 계기로 된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된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신형주력땅크의 요격체계의 기능성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반땅크수단들에 대한 철저한 소멸능력을 완벽하

게 갖추었다는것을 실증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놀라운 전투적성능을 과시한 신형주력땅크를 평하시면서 세계적으로 이 땅크와 견줄만한 땅크가 없다고 이미 천명한 우리의 견해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날 진행된 신형주력땅크의 능동방호체계검열을 위한 여러 시험에서는 각이한 방향에서 공격하는 반땅크수단들에 대한 방호체계의 전투적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시험하였으며 100% 확률로 방어적기능의 완벽성이 확인되었다. (끝)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출력탄소섬유고체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탄소섬유복합재료를 리용한 대출력고체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하시었다. 새로 갱신된 대출력고체발동기의 최대추진력은

2,500kN 으로서 해당 시험은 전략적타격수단들의 부단한 갱신을 중요목표로 제시한 새로운 5개년기간의 국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갱신된 발동기시험이 가지는 전략적의의에 대하여 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의 전략적군사력을 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우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 시험은 전략무력의 현대화에 관한 국가전략과 군사적수요조건에 충분히 만족된다고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략무력건설에서 이미 중대한 변화국면을 맞이한 우리의 국방력발전형세는 이번 시험과 같은 경제 및 기술적효과성이 우월하고 보다 우수한

구성요소들의 개발과 도입성파에 의하여 더욱 변화, 가속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전략무력의 질량적발전을 보다 적극화해나가기 위한 중요과업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장 장창하동지와 미사일총국, 미사일연구부문의 일군들, 고체발동기연구소와 미사일발동기생산공장을 비롯한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이 시험에 참가하였다. (끝)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업을 앞둔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여러 봉사시설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업을 앞둔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여러 봉

사시설을 돌아보시면서 운영준비정형을 료해하시였다.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시대 문

명의 상징으로 훌륭하게 전변된 화성지구의 새 거리에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 기쁨과 환희가 끝없이 넘쳐나는 속에 인민들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여러 봉사기지들의 개업준비가 마무리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미산자동차기술봉사소》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각이한 료전기재들의 기술봉사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과 종합적인 수리봉사체계가 훌륭히 구비되었을뿐 아니라 각종 차부속품들과 손님들의 취미와 기호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다양한 상품봉사를 예견하고있는 봉사소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편리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손색없이 꾸려진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산자동차기술봉사소》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봉사분야를 다양한 형식과 방식으로 부단히 개척하고 확대해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화성지구에 두번째로 일떠선 료전기재기술봉사거점이라고 하시면서 이곳에서는 전문화된 기술 및 수리봉사활동으로 각급 기관, 기업소들과 근로자들의 업무 및 문화생활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화성애완동물상점》을 찾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상점의 1,2층에 있는 여러종의 애완동물들을 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 수도와 지방에서 애완동물들을 키우고있는 가정들이 늘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애완동물들과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관리용품들을 판매하고 전문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상점을 새로 꾸리도록 하였다고 하시면서 경영관리와 수의봉사에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각종 애완동물관리도구와 사료, 수의약품생산실태를 언급하시

면서 앞으로 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성악기상점》을 찾으시여 전시구역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음악애호가들과 학생들, 전문연주가들을 위한 연령별, 종류별에 따르는 악기들과 다양한 소모품들을 갖추어놓고 진렬방법도 새롭게 혁신하여 봉사의 편리성을 보장할수 있게 한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분야, 모든 문화생활령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봉사에서도 업종별에 따르는 전문성을 높이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봉사시설배치에서 인민들의 높아가는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봉사업종들을 내오는것과 함께 전문성제고에 주력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새로 꾸린 리발, 미용소의 운영준비실태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도시구획구성에서 편의시설들은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문명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요소로 된다고 하시면서 손님들의 미적요구와 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봉사의 질을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재부인 문화생활거점들이 늘어나는데 맞게 사회주의문명발전의 귀중한 밑천으로 되도록 관리운영을 잘하는것도 방대한 건설사업에 못지않은 중대하고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식의 새로운 봉사문화를 창조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성거리의 봉사자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충직한 복무관점을 지니고 봉사활동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따뜻이 격려해주시면서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개업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끝)

##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승엄히 거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권위와 존엄을 지켜 열렬한 애국충심으로 역사에 전무한 기적적인 승전신화를 창조한 조선인민군 해외군사작전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영웅정신을 칭송하는 전투위훈기념관이 수도의 명당자리에 훌륭히 건립되었다. 성스러운 사명과 의무를 지니고 형제적인 로씨야련방의 꾸르스크주를 해방하기 위한 특수군사작전에서 발휘된 우리군대 특유의 사상정신적우월성과 대중적영웅주의, 무비의 용감성을 길이 전하게 될 불멸의 전당은 가장 정의로운 인민, 가장 강대한 우리 군대의 상징으로, 피로써 맺어지고 공고화되는 조로관계발전에 무궁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위대한 기념비로 된다. 고결한 희생과 영웅적인 무훈으로 시대와 역사앞에, 후대들앞에 영원불멸할 공적을 쌓아올린 조국의 훌륭한 아들들을 영예의 절정에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전렬사들의 이름과 모습이 영생의 별무리로 길이 빛날 수 있도록 전투위훈기념관의 설계와 시공, 전투위훈내용배렬과 상징기념물창작사업에 이

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장병들이 불길 속에 찍어간 생의 자욱들과 험악한 전과, 열혈의 박동과 숭고한 넋을 최고의 건축술과 고매한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는 기념비적창조물에는 참전용사들에게 드리는 우리 당과 정부,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무한한 지성과 공경, 숭고한 도덕의 리심이 집성되고 우리 시대의 영웅성과 우리 위업의 필승불패성이 응축되어있다.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이 로씨야련방 꾸르스크해방작전종결 1돛에 즈음하여 4월 26일 승엄히 거행되었다.

준공식장에는 조국의 명령에 끝없이 충실하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명예를 위해 들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경건한 추억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었다.

조용원동지, 조춘룡동지, 노광철동지를 비

룩한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 조선 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 해외작전부대, 공병부대 장병들과 련사유가족들,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기념관건설에 공헌한 군인 건설자들과 창작가들, 혁명학원 원아들, 청년학생들, 수도시민들이 참가하였다.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 바체슬라브 월로진동지,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쑈브 동지를 비롯한 로씨야련방 공식대표단,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군대를 세계에 유일무이한 정치사상강군,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야마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시고 가장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경륜으로 영웅전사들의 삶을 값높은 영생으로 이어주시는 희세의 천출명장, 위대하신 아버이를 우러러 걱정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가한 해외작전부대 련단장, 대대장들을 만나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능숙한 전투지휘로 조선인민군의 특출한 전투정신과 용감성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우리 국가의 강대함과 신성한 권위를 명예의 단상에 거연히 떠올리는데 공헌한 해외작전부대의 전체 지휘관들에게 뜨거운 전투적격려를 보내시었다. 가렬한 전투포화를 앞장에서 헤쳐온 미더운 지휘관들을 한사람한사람 포옹 해주시며 육친의 뜨거운 정과 열을 부여 주시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준공식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었다.

로씨야련방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을 기념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 전체 장병들의 소원, 온 나라 인민들의 간절한 속망과 지성우에서 태어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의식을 가지게 된 감개함을 피력하시면서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기념관건설에 아낌없는 노력과 지혜를 바

친 각급 건설부대 판병들과 관여기관 일군들, 창작가들에게 총심으로부터의 감사를 표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의의 리념에 충실한 조로 두 나라 군대가 평화와 주권을 위하여 어깨를 결고 한전호에서 싸운 꾸르스크해방작전의 전략적의의와 전투적우애의 본보기를 창조하는 혈전혈투의 행로에서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 불굴의 전투정신과 고결한 희생에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해외군사작전은 당과 조국의 명령앞에 스스로의 량심과 도덕적권리로 나선 군인들, 티없는 충실성의 열화로 심장을 꿰이고 그 무한의 생명력으로 극한점들을 넘어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인간들이 벌린 력사에 전무한것이였다고 평가하시면서 오늘의 준공식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명성에 절대적 불변성을 부여해준 의식으로 청사의 한페이지에 기록될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성스러운 사명감과 강인성으로 써나가는 수호의 전기들과 더불어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은 누리에 빛날것이며 그 찬연한 빛발속에 련사들은 영생할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위대한 군인들의 고귀한 삶이 무궁토록 빛나기를 총심으로 기원하시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의 준공을 선포하시었다.

정의로운 성전에 한몸 바친 련사들의 모습과 이름을 불후의 기념비에 금문자로 새겨 값높이 빛내여주시는 은혜로운 그 품이 있어 그들이 떨친 숭고한 정신과 기개는 대대손손의 정의속에 불멸하리라는 것을 전체 참가자들은 크나큰 걱정속에 새겨안았다.

이어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 바체슬라브 월로진동지가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참가자들에게 보내여온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쨌동지의 편지를 낭독하였다.

편지에서 뿌쨌대통령동지는 꾸르스크해방 1돛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준공하는 해

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의 준공을 축하하며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로씨야의 전우들과 어깨걸고 싸우면서 특출한 용감성과 진정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불멸의 영광을 떨친 무비의 위훈은 모든 로씨야 국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라고 하면서 꾸르스크해방작전참전자들과 희생된 영웅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감사와 숭고한 경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동지, 로씨야련방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쑈브동지가 준공례포를 끊었다.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의 영웅적인 희생과 위대한 공적에 드리는 숭고한 경의를 담아 추모의 흰풍선들이 무수히 날아올랐다.

해외군사작전 참전렬사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국방상 노광철동지는 정녕 보내고싶지 않고 잃을수는 더욱 없었던 귀중한 우리군관, 병사들이 것처럼 그리워했고 마지막 순간에도 돌아와 안기고싶어했던 조국의 대지가 이제 그들을 따듯이 품어안게 된다고 하면서 불멸할 위훈과 함께 남긴 고귀한 념원들과 믿음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즐기찬 투쟁으로써 길이 지켜질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국의 부름에 한몸 주저없이 내댈 참다운 애국자, 용감한 열혈의 혁명전사들을 다시 일으켜세우지 못하는 야속함과 상실의 아픔을 누르시며 김선철렬사의 유해에 흠을 없으시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아들들의 명복을 바라며, 가장 참된 군인, 가장 참된 인간들의 영생을 기원하며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려사들의 유해에 흠을 덮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고귀한 생을 아낌없이 바친 참전용사들의 영웅적최후를 경건히 회억하시었다.

《조국에 대한 노래》의 선율이 울리는 속에 충성의 별무리를 품어안는 운명의 하늘이 되어 돌아오지 못한 려사들에게

영원한 생의 박동을 안겨주고 그들이 남기고 간 혈육들의 운명과 미래까지 다 맡아안아 보살펴주는 위대한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를 전하는 려사의 순간순간이 뜨겁게 흘러갔다.

온 나라의 존경과 축복속에 려사유가족들이 행복한 생활을 시작한 보금자리결에 세월의 이끼에 덮일수 없는 영웅들의 넋과 숨결이 살아있는 영생의 집을 세워주시고도 그 어떤 대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로지 조국의 번영만을 축원하며 생을 마친 푸른 젊음을 두고 애석함을 금치 못하시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유가족들은 격정의 눈물을 흘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자식들과 남편들의 고결한 삶과 빛나는 최후를 장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간주하며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슬픔을 곳곳이 이겨내고있는 유가족들에게 다시금 숭엄한 경의를 드리시었다.

조선인민군 군인이라면 당과 조국을 위하여 어떤 생을 살아야 하며 조국앞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를 애국적장거로써 보여주고 영웅조선의 필승불패성을 더 높은 경지에로 승화시킨 참전용사들에게 드리는 숭고한 경의심을 담아 조총이 발사되었다.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조선인민군 특수군사작전 참전렬사탑에 진정되었다.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과 국방상의 명의로 화환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조선인민군 특, 해, 공군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정의와 존엄, 평화수호를 위한 성전에 참가하여 조국과 혁명, 후손만대에 영원불멸할 위대한 승리의 새 려사, 백절불굴의 영웅전을 창조한 조선인

민의 장한 아들들인 참전렬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 공식대표단 주요성원들,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특유의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열혈의 애국심, 대중적영웅주의로 강자의 위대한 명함과 승리자의 영광을 떨친 참전렬사들이 영생의 별로 빛나고있는 추모벽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로씨야련방 공식대표단 성원들,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 련사유가족들을 비롯한 준공식참가자들이 드리는데 꽃송이들이 추모벽에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영원히 간직하고 이어가야 할 조국의 명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열렬한 애국정신, 강자의 명예를 지켜 죽음도 영광으로 맞이한 불굴의 기개를 보여주는 사진자료들과 전시물들을 깊은 감회속에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유해안치실들을 찾으시여 련사들의 령전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오의 전렬에 믿음직하게 서있던 튼튼한 그 모습들을 다시는 볼수 없지만 조국의 존귀한 명예의 수호자들인 련사들의 넋과 정신은 영원히 조선인민의 영웅성의 상징으로, 우리 군대의 강대성의 기치로 나뭇길것이며 자주와 정의를 위한 공동의 위업을 위해 투쟁하는 조로 두 나라 인민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격려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방문록실에 들리시여 《품고 싸운 그 흙에 생은 덮여도 지켜낸 위대한 명예와 더불어 련사들의 넋은 영원할것이다

장한 이 나라의 아들들, 군관 병사들에게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이 명예의 단상을 삼가 드린다

## 김정은

2026. 4. 26》이라는 친필을 남기시였다.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 바체슬라브 월로진동지와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쑈브동지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위훈기념관 로획 무기전시장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값비싼 선혈로 형제적 인민의 존엄과 안녕을 보위하고 조로 두 나라사이의 전투적우의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동맹관계, 형제관계의 굳건함을 검증하였으며 후세도록 경의를 받을 우리 세대의 존엄과 명예, 긍지와 영광을 떠올린 참전렬사들의 영생을 기원하는 전투위훈기념관이 주체조선의 국보관으로,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두 나라 인민의 강렬한 의지와 힘을 체현한 위대한 동맹의 기념비로 길이 빛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국의 명령을 받들고 돌격해간 영웅들의 위훈에 찬 행적이 어려오고 최후의 시각에 남기고 간 아름다운 생의 메아리가 뜨겁게 울려오는 애국주의교양의 전당을 돌아보며 전체 참가자들은 련사들의 숭고한 넋과 포부를 한시도 잊지 않고 그들이 그토록 념원한 부흥강대한 나라,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철석의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조선인민의 위대함을 상징하며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시대, 김정은시대를 증언하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과 더불어 참전렬사들의 불같은 넋은 억년토록 강대할 우리 국가의 존위와 무궁번영속에 영원불멸할것이다. (끝)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5일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편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1912년 4월 15일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대통운의 날이며 세계진보적인류의 앞길에 자주시대의 려명이 밝아온 력사적인 날이였다고 밝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로부터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

시며 조국의 룡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고 칭송하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자주의 기치높이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거창한 혁명실천과 숭고한 덕망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가, 성인중의 대성인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은 오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승승장구하고있으며 성스러운 태양의 력사는 변함없이 흐르고있다고 밝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원대한 숙원을 안으시고 위민헌신, 멸사복무의 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고계신다고 칭송하였다.

새로운 지방발전정책과 농촌혁명, 보건혁명을 비롯하여 전국적판도에서의 대변혁이 전격적으로 진척되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의 새 생활, 새 문명이 꽃피나고 세상 사람들의 찬탄과 부러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재중조선인들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신 조선사람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배가해주고있다고 격찬하였다. 끝으로 편지는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한결같은 소원을 담아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한다고 칭송하였다. (끝)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4 뉘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4월 15일 길림시에서 성대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하여 하늘높이 자란 설송들이 봄바람에 설레이고 고무풍선과 채색기, 조중량국 손기발로 장식된 유서깊은 길림육문중학교로 각지에서 대형버스를 타고 달려온 화려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수백명의 젊은 조국녀성들이 입장하면서 장내는 기쁨과 환희로 완연한 명절분위기에 설레이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올리는 꽃바구니들이 줄줄이 놓여져있다. 육문중학교밖에는 많은 공안인원들이 통행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고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산하조직대표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 일군들, 동북 3성에서 사업하고있는 조국지사성원들과 조국에서 온 연수생들이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다.

중국 길림성인민정부와 길림시인민정부 일군들, 길림육문중학교 당위서기를 비롯한 중국사회단체 대표들과 인사들, 료녕성과 길림성의 각계층 재중동포단체 대표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4 뉘을 뜻깊게 경축하는 4월명절행사는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공부하시던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심양주재 조선총령사관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 재중동포단체들과 동포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는것으로부터 진행되었다.

경축행사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4 뉘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대회가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되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국인민들 모두가 당 제 9차대회가 밝힌 휘황한 진로따라 사회주의전면적 발전을 위한 총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님께서 혁명활동의 첫 자욱을 새기신 잊을수 없는 려사의 땅 길림시에서 수령님 탄생 114뉘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고 연설하면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한결같은 경모의 정을 담아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지략, 강인담대한 배짱으로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보고자는 20세기를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승리의 세기로 빛내이신 걸출한 수령, 위대한 혁명가는 일찌기 없었다고 칭송하면서 조국을 찾아주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한 세대에 강대한 두제국주의를 라승하시였을뿐 아니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우뚝 올려 세워주신 우리 수령님은 불세출의 위인이시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국력이 강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된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앞당겨오 시려 불철주야 초강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언제나 밝고 창창하며 최후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연설하면서 우리 모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가 제시한 휘황한 설계도따라 조국을 받들고 빛내이는 애국충정의 한길에서 공화국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보고가 끝나자 장내의 수백명의 경축행사참가자들은 질서있게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면서 조중친선의 상징으로 그 옛날의 모습대로 잘 보존되어있는 수령님께서 공부하시던 교실과 학교의 연혁실을 참관하면서 수령님의 고귀한 생애를 경건히 돌이켜보았다.

계속하여 경축행사참가자들은 길림시인민대극원에서 경축공연을 관람하였다. 길림시인민대극원은 아름답고 우아한 민족의상을 차린 조국여성들을 비롯한 관중들로 초만원 을 이루었다.

경축공연은 백여명의 출연자들의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막을 올렸다. 출연자들의 독창, 중창, 합창, 기악독주, 기악중주와 흥취나는 춤틀동은 관람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장내는 시종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칭송하고 조중친선을 노래하는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종장의 대합창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는 심금을 울리는 기사와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의 구가로 감동된 관람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대합창으로 변하여 장내의 분위기가 고조를 이루었다.

공연이 끝난후 우리 공민들과 행사귀빈들이 의덕원호텔에서 진행하는 성대한 경축연회에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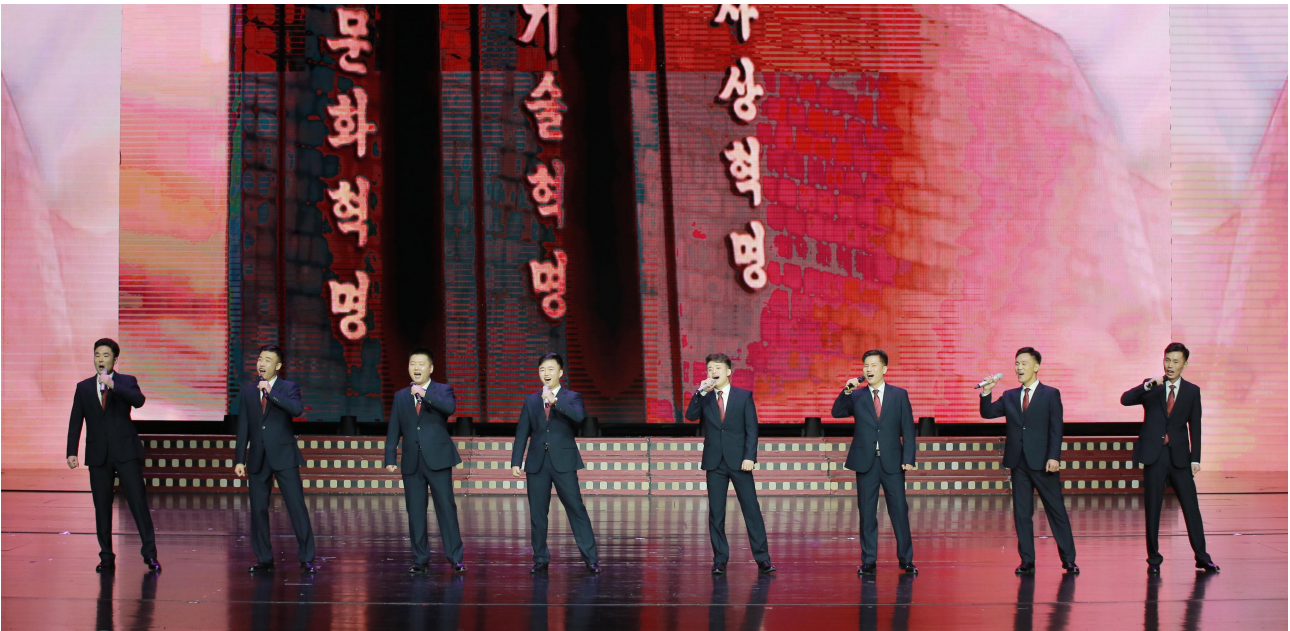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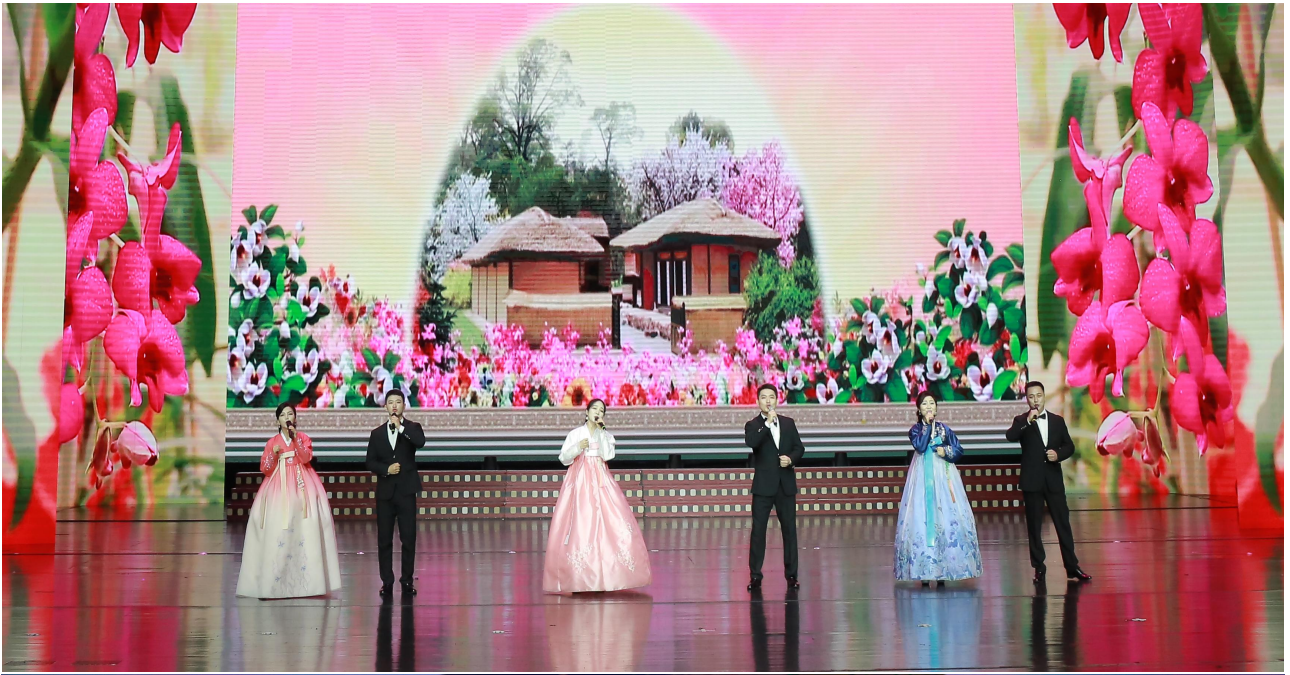
이에 앞서 경사스러운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12일 총련합회본부일군들과 심양시지부공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축하편지를 채택하는 모임이 총련합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뜻깊은 4월명절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와 료녕지구협회 단동시지부, 연변지구협회, 목단강지구협회, 장백현지부, 집안시지부, 상해시지부, 할빈시지부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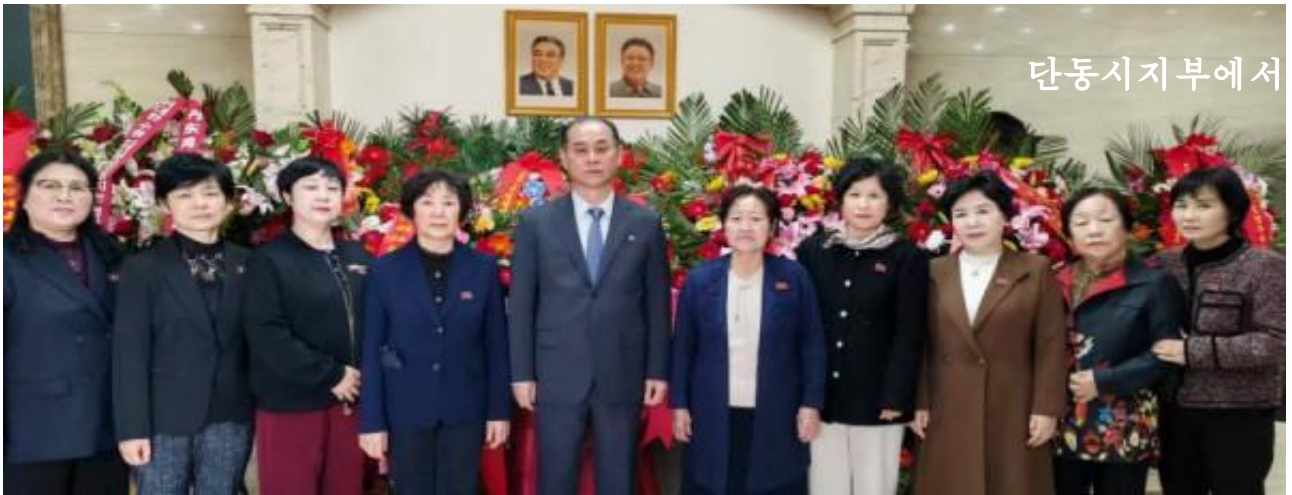








북경시지부에서



단동시지부에서



장백현지부에서



목단강지구협회에서



할빈시지부에서



## 4 월의 봄명절에 참가한 공민들의 반향

목단강지구협회 부회장 김영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력사의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공화국의 장성발전사에 일찌기없었던 거창하고도 세기적인 변혁을 창조해가는 격동적인 투쟁의 년대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반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더없는 기쁨과 환희에 휩싸여 새로운 5 개년계획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천만군민이 일떠선 오늘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14 뉘를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10 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선독립의 원대한 포부를 품으시고 장장 20 여성상의 피어린 항일대전을 벌리시여 마침내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조국해방의 대업을 성취하신 우리 수령님! 공화국이 창건되어 2 년도 못되어 미제침략자들은 청소한 우리 조국을 없애 보려고 침략전쟁을 일으켰지만 3 년간의 치열한 조국보위전에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려부시고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신 우리 수령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은 끝없는 승리의 력사로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것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영광찬란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삼가 축원합니다.

계서시지부 지부장 정명희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당 9 차대회가 전면적국가부흥의 대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조선의 영원한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14돛을 뜻깊게 맞이합니다.

주체혁명의 불멸할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로 강대하고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만년주추를 다져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새시대 거창한 변천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력으로 되고있으며 오늘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경모심은 세월이 흐를수록 강렬해지고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인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으로 받들어 당제 9 차 대회가 펼쳐준 전면적 국가부흥의 거대한 변혁의 현실에 조국인민들과 보폭을 맞추며 애국의 대오로 걸어나아가겠습니다

녕안지부 박상진지부장



경사스러운 4 월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14 돛을 뜻깊게 맞이합니다. 우리들은 36 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로 도탄에 빠진 조선의 독립을 찾아주시고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함께 혁명무력건설로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만년주추를 다져 주신 위대한 수령님은 3 년간 조국전쟁에서 미제와 련합세력을 라승하시고 조국을 보위하였습니다. 사회주의시조이시며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업적과 그리움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은 우리 국가의 무궁번영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오늘 당 9 차 대회에서 제시된 전면적국가부흥의 대업을 실천하기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일심전력으로 우리 국가의 튼성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해 헌신분투해갈 철의 의지로 혁신을 일으켜나아가는 조국인민들의 보폭에 맞추어 우리들도 역세계 따라나서겠습니다.

牛志勇于 北京



春光明媚的四月，我们迎来了朝鲜人民的伟大领袖金日成主席诞辰 114 周年意义深远的太阳节。为庆祝这一光辉的节日，我受旅中朝鲜人总联合会的邀请，4 月 15 日来到了金日成主席曾经学习和生活过的吉林毓文中学，在伟大的金日成主席铜像前敬献花篮合影留念，以此表达对金日成主席的深情热爱和无限敬仰之情。纪念庆祝 4.15 太阳节，让我们更加缅怀金日成主席！

伟大的金日成主席是朝鲜劳动党、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和朝鲜人民军的缔造者，是朝鲜人民永远的伟大领袖。金日成主席创立了主体思想，确立了“政治自主，经济自立，国防自卫”的国家发

展路线。

在漫长艰苦的革命斗争中，打倒了日本帝国主义，在朝鲜祖国解放战争中，打败了美帝国主义。并将二十世纪引向反帝自主事业和社会主义事业胜利的世纪。不仅在一个时代战胜了两个强大的帝国主义，而且还带领反帝反封建民主主义革命和社会主义革命引向胜利之路。

伟大领袖金日成主席的崇高威望，超凡品格和历史功绩，在中国人民心中也是深受尊敬和爱戴的。中朝友谊是两国老一辈革命家亲自培育结成的，是用鲜血凝成的。

庆祝 4.15 太阳节文艺演出，精彩纷呈，演出人员情感真实，艺术水准非常高，每个节目都能让观众产生共鸣。当听到《金日成将军之歌》和《朝中友谊万古长青》合唱曲时，不由自主的跟着唱，眼中热泪在涌动，激动的心情无法形容.....，

演出舞台大屏幕的背景画面非常鲜艳漂亮，展现出来朝鲜欣欣向荣，国家强盛发展，人民幸福安康快乐，让观众耳目一新，节目和背景相互映衬，特别震撼！

参加 4.15 太阳节的庆祝活动，让我更增加了对伟大领袖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无限热爱！！！

## 당 제 9 차대회소식에 접한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의 반향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 김영미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영광스러운 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을 이룬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진행된 당제 9 차대회의 내용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학습하여 뼈에 새기며 경애하는 김정은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 아래 당제 9 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번영의 년대기에 또 한페이지를 아로 새길 거창한 새변혁의 시대를 힘차게 개척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심분투해나가고있는 조국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숨결에 발을 맞추어 저 자신도 우리 조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열심히 다해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 양원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는 영웅적인 개척과 불굴의 투쟁으로 승리와 영광의 봉우리를 거연히 떠올린 성스러운 5년간의 령정을 긍지높이 총화짓고 우리 국가의 즐기찬 튕성번영과 전진도약의 리정표를 세운 영광의 대회였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무한한 영광과 긍지를 안고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한 투쟁행로에서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 어머니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며 당대회가 제시한 중대한 정책적과업들을 받들어 재중청년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 량리향



은 나라 전체인민과 우리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탁월한 정치실력과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만인의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또다시 높이 모신것은 우리 모두의 최상의 영광이며 무한한 행복입니다.

저는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우리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습니다. 날을 따라 변모되는 내 조국의 현실을 폐부로 절감하면서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재중조선인청년협회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멀리 해외에 살아도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필연적 과업들을 실현하는데 해외공민으로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겠다는것을 결의합니다.

####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 리선



저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의 내용을 자자구구 학습하면서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를 절대충성의 신념과 의지로 받들어 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영예로운 투쟁에서 해외청년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다지게 됩니다.

---

---

## 조선민족의 녀을 대를 이어

####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 김명우

나는 오늘 갓 6세가 된 어린 아들의 손목을 잡고 압록강을 거닐며 순간 잠겨버렸던 심사를 간단히 터놓으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중국 단둥땅에서 한눈에 바라보이는 강건너편 그 곳은 바로 《태를 묻은 내 고향, 조상대대로 민족의 얼이 뿌리내린 나의 조국이다.

매일과 같이 그리워 바라보는 지척의 내 조국땅이지만 조국이란 무엇인지 리해하기에 너무도 어린 아들에게까지 저기 저편이 바로 엄마가 태어난 고향이고 엄마의 위대한



조국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을만큼 하루가 다르고 멋지게 변모되어가는 내 조국 국경도시의 황홀경을 바라보며 웬지 모르게 마음이 뿌듯해지고 긍지가 끓어 올랐다.

조국멀리 떠나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 애국의 마음만큼은 절대로 지켜가며, 내생 끝까지 가야 할 불변의 길이라고 굳게 다짐할 때 첩첩히 쌓여올 세상만파를 억세게 헤쳐나갈 그 각오는 나 하나뿐이 아닌 이 지구상의 모든 애국자들의 신념일것이다.

이국의 들가에 이름없이 묻힌 이들도 있고 애국을 입말처럼 가볍게 불러웨친 비겁한자들도 있었다. 조국에 대한 낮을 지니고 있다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애국이지만 수천수만갈래의 그 길우에 천태만상의 심사들이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서 애국자로, 영웅으로 값높이 불러주고 내세워주는 이런 나라, 이런 조국을 가진 공민이 다름아닌 우리 조선공민이라는 영광과 자부, 언제나 따사롭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어머니 위대한 내 조국을 위해 어떤 시련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용감할 마음 용솟아 운명도 미래도 다 맡겨버린 우리 조선공민들!

나도 그 길우에 함께 서있다는 뿌듯함이 부풀어 올라 강건너편 내 조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펜을 들게 만든것이다.

권익옹호, 새세대육성, 민족성고수!

바로 이 원대한 지침이 우리들을 애국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절대적인 로선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형식이 아닌 실천으로 걸어나아갈 때 우리의 애국의 길은 자자손손 더욱 창창할것이다.

나는 여기서 다시금 결심을 가다듬는다.

철부지 6살인 아들이지만 우리 말과 우리글을 잘 가르쳐주고 조국방문기회때마다 함께 방문을 하여 민족의 얼을 알고 지켜나갈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자.

그것이 곧 후대들에게 조국이란 무엇인지를 알게하고 대를 이어 애국의 길을 걸어가는 참다운 생이기에...

## 독서는 삶을 빛나게 한다

심양공민 심혜중

며칠 전 책장을 정리하다가 누렇게 변색된 소설 《보바리부인》을 발견하였다.

속표지에는 《2010년 가을, 심양》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글씨는 학생다운 깔끔함을 지니고있었다.

십여년이 지난 지금, 책사이에 낀 은행잎은 이미 완전히 말라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지는것만 같았다.

마치 십여년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였다.

하긴, 이사를 다니면서 헌 옷들을 버리고 중고가구를 팔았지만 유독 이 책들은 한권도 버리기 아까웠다.

책들은 나의 책장과 기억을 묵직하게 차지하여 주었을 뿐만아니라 새책의 잉크향, 낡은 책의 곰팡이 냄새, 그리고 커피점에서 읽은 책에까지도 있듯말듯한 커피향이 남아있다.

독서는 말로는 평범하지만 읽을 때는 약간의 의식감이 필요하다.

따뜻한 차한잔으로 손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하여 침대우에 던진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책을 펼친다.

이 동작을 30년동안 반복했는데도 여전히 기대함과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누가 저에게 그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기억했냐고 물었다.

솔직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읽은 내용은 마치 해변가의 모래속에 새긴 글자처럼 시간의 조수에 깨끗이 씻겨 내려갔다.

이러면서도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홍루몽을 읽었던것이 생각난다.

할아버지는 수없이 읽었지만 항상 같은 곳에서 눈물을 흘렸다.

왜 울으시냐고 물으니 할아버지는 《애야, 나는 책속의 사람을 위해 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말 못할 일들을 생각나서 우는거야.》라고 대답하시였다.

그때는 깊은 의미를 몰랐지만 커서야 비로서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좋은 책은 거울과 같다는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애환을 비추고 있으며 기억나지 않는 줄거리와 기억되지 않는 인물들은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을 조용히 변화시키고있는것이였다.

제가 본 진정한 독서애호가들은 책풍기가 나지 않고 옷차림이 자유롭고 말이 직설적이며 때로는 한두마디의 거친 말도 튀어나지만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온 우주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자전거를 수리하는 한 로인을 알고있다.

30년동안 길옆에서 자전거를 수리하고있다.

옆에는 항상 책이 놓여있고 차를 수리하지 않을 때는 앉아서 책을 읽는다.

책을 가리지 않고 별의별 책을 다 본다.

한번은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는 마르케스가 불면증을 쓴 그 대목을 읽고있었다.

고개를 들어 저에게 말했다. 《보세요, 이건 우리 세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잠은 점점 줄어들고 꿈은 점점 더 많아지고...》

이 말은 나로 하여금 독서는 가장 평범한 속에서 가장 깊은 인생을 볼수 있는것을 다시금 알게 하였다.

사실 하나를 더 이야기해보려 한다.

제 친구 한 명이 지난 2년 동안 창업에 실패하고 많은 빚을 지어 자신을 집에 가두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나중에 그를 보러 갔는데 그의 방에는 력사, 철학, 인물등 여러 종류의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책을 읽을수 있어?》라고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읽을수 없었지만 억지로 봤어요. 보다 보니 내가 당한 일은 력사의

흐름속에서는 자그마한 한방울의 물에도 속하지 못해, 나 이 정도의 좌절은 아무도 아니야》라고 대답하였다.

그 순간 나는 또한번 깨달았다.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것을. 그것은 당신은 첫번째 고통스러운 사람도, 마지막도 아니라는것을 알게 해준다.

수백년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걸어온 길을 걸어왔으며, 그들의 지혜와 용기는 그 책속에 담겨져있다는것을...

이것이 바로 독서의 무기이다.

당신이 가장 외로울 때 당신이 외롭지 않다는것을 알게 해준다.

디지털시대에는 독서는 다소 이뻏아이란 느낌이 든다. 짧은 동영상은 15초만에 즐거움을 줄수 있지만, 《전쟁과 평화》를 다 읽는데는 몇 달이 걸릴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오는 기쁨은 빨리 가는것처럼 즉석음식을 먹을 때는 만족하지만 먹고 나면 어떤 맛인지 인차 잊어버린다.

그러나 독서는 다르다.

독서는 느리고 둔하며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것은 깊은 루적이다.

깊은 밤에 읽었던 문장들, 비오는 날에 그어진 단락들, 기차에서 읽은 모든 글들은 어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 독서자에게 지혜를 가져다준다.

창밖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져 나는 책을 덮고 일어나 불을 켜다.

빛이 켜지는 순간 책꽂이에 있는 높고 낮은 책들을 보고 문득 그것들이 책이 아니라 오랜 친구라는 생각이 든다.

차가 식어서 뜨거운 물을 붓고 다른 책을 펼쳤다.

책사이로 또 하나의 세상이 펼쳐진다.

책을 읽는 사람은 아마도 세상을 살면서 결국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속에 품고있는것은 우주일것이다.

책을 읽는 가장 소박한 리유는 다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과 어제가 다르고, 금년과 작년이 다르고, 평범한 일상에서 색다른 풍경을 보고, 막막할 때 빛을 찾고, 늪어갈 때 마음속에 다채로운 세상을 담기 위해서이다.

결국엔 독서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자기계발으로 몇시간만에 다른 사람이 평생 쓴 지혜를 자신의 머리에 담아 더 낫은 자신을 수립해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4돐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



당 제9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진로따라 반만년력사에 특기할 기적과 변혁의 시대, 전면적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4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이 땅우에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워주시고 후손만대

의 번영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온 나라 인민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이어졌다.

한없이 경건한 마음 안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선 군중들은 한평생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를 경건히 돌이켜보았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에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군중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가며 즐기찬 분투와 헌신으로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떨쳐갈 결의를 다짐하였다.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난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근로자들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간직하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령사를 수놓아오신 절세위인의 만고불멸할 업적을 깊이 새겨안았다.

평양시와 각 도, 시, 군소재지들의 주요 장소들과 전국의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등에 공화국기가 휘날리고 직관물들이 제시되어 명절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사회주의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가는 믿음직한 역군들로 튼튼히 준비해갈 맹세를 안고 각지 학생들이 조선소년단에 입단하였다.

수도와 지방의 극장 등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모란봉극장에서 국립교향악단음악회가 있었다.

서곡 《만경대의 노래》로 시작된 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자긍심, 위대한 당중앙이 가리킨 승리의 진로따라 웅대한 리상과 목표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을 관현악의 장중한 울림과 정서적인 선률에 담아 잘 보여주었다.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된 종합교예공연이 4월명절을 맞는 인민들에게 희열과 랑만을 더해주었다.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을 비롯한 중앙예술단체의 예술인들과 평양시안의

예술선전대원들, 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수도의 곳곳에서 야외공연무대를 펼치였다.

혼성중창 《태양절을 노래하세》, 녀성독창 《만경대의 노래》 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우리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감동깊은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었다.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남포시, 개성시 등에서도 다채로운 예술공연들이 진행되였다.

사회주의문명의 새 경지, 거창한 변혁의 새시대를 개척해나가는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구가하는 공연들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강계시에서는 승마구락부 기마수들의 모범출연이 있었다.

출발선을 박차고 주로에 나선 기마수들이 숨씨있게 말을 몰아갈 때마다 관람석에서 연방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한 경축의 환희와 걱정은 평안남도, 황해북도, 량강도, 라선시를 비롯한 각지의 무도회장들에도 차 넘쳤다.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의 자주적삶과 후손만대의 밝은 미래가 굳건히 담보되는 존엄높은 공화국의 공민된 자긍심을 안고 아름다운 춤틀동을 이어나갔다.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을 비롯한 문화휴식터들에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났으며 각지 급양봉사망들도 다채로운 명절봉사로 흥성이였다.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애국으로 더욱 굳게 단결하여 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 년대와 세기를 이어 울려 퍼지는 위인찬가, 친선의 노래 제 34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4돐을 맞으며 절세위인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심이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있는 속에 제 34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축전에는 로씨야, 중국, 라오스, 웰남, 몽골, 캄보자를 비롯한 수십개 나라의 이름있는 예술단, 무용단, 교예단과 해외동포예술단 등이 참가하였다.

축전무대에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과 세계 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칭송한 종목들, 여러 나라 인민들의 전통적인 생활 풍습, 민족문화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작품들이 펼쳐지게 된다.

제 34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진행되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의 수많은 예술단체들과 배우들, 해외동포예술인들은 위인칭송의 송가들을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형상하였으며 자기들의 공연록화 편집물을 축전조직위원회에 보내어왔다.

로씨야련방민족근위군 아카데미야협주단, 엠.예.빠뜨니쁘끼명칭 국립아카데미야민속합창단, 아.아.유틀로브명칭 국립아카데미야합창단, 《우랄》국립아카데미야무용단, 아.웨.쉬삐찌꼬명칭 《루스까야 우달》국립로씨야민족관현악단, 국가교예회사 교예단 등 로씨야의 많은 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은 축전에 참가할것을 열렬히 희망하면서 보다 훌륭한 작품들을 내놓기 위해 창작적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여러 나라의 정부와 문화예술계의 인사들도 자기 나라의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의 축전참가를 적극 지지하고 축전의 성과적 보장에 성의를 다하였다.

인류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할 업적으로 하여 만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끝없는 매혹과 흠모, 자주, 평화, 친선의 열기를 예술적화폭으로 체감하게 하는 공연록화 편집물들은 서른네번째의 자랑스러운 년륜을 아로새기는 국제적인 예술축전의 면모를 뚜렷이 과시하게 된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제34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개막되었다.

제34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개막소식을 담은 편집물에서는 이번 축전의 진행형식과 방법, 그 규모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 각계 인사들의 축하발언, 예술인들의 공연장면 등이 소개되었다.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상 현은철동지는 제34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창작가,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이번 축전이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기

대에 맞게 문화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의의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전개막을 선언하였다.

로씨야연방 문화상, 중화인민공화국 문화 및 관광부장,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문화 및 관광상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오랜 기간 명성을 떨친 세계적인 예술축전으로서 나라들사이의 문화예술교류 및 합작의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이번 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기를 축원하였다.

알렉산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아카데미야 협주단의 예술인들이 준비한 혼성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혼성중창 《내운명의 품》(조선노래), 남성독창과 합창 《해빛밝은 초원에서》, 무용 《명절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은 축전의 개막을 의의있게 장식하였다.

## 전국의 대학, 학교들에서 2026년 새 학년도 시작, 개학모임 진행

2026년 새 학년도의 시작과 더불어 부강번영하는 내 조국의 미래이며 믿음직한 주인공들인 새세대들의 기쁨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끝없이 넘쳐났다.

4월 1일 수도 평양으로부터 두메산골,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개학모임이 진행되었다.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열렬한 축하속에 배움의 꽃대문으로 들어서는 학생소년들의 행복넘친 모습은 후대들의 밝은 웃음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상으로 빛내여주는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교육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교원들은 학생소년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제2차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과 대학들의 학과별교육강령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교수안작성과 실험실습기재, 다양한 교수교양자료구비 등 새 학년도준비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어머니당의 은정어린 새 교복을 입고 《민들레》 학습장과 《해바라기》 학용품

넣은 《소나무》책가방을 멘 소학교, 초급 중학교 신입생들을 비롯한 전국의 학생소년들이 즐거운 등교길에 올랐다.

어깨동무 손잡고 노래부르며 발걸음도 활기차게 학교로 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학부형들의 얼굴마다에는 교육사업을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이 어려있었다.

개학모임을 앞둔 만경대혁명학원, 칠골혁명학원, 평양중등학원, 평양초등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창덕학교, 동대원구역 문신고급중학교, 김성주소학교, 중구역 동안소학교, 보통강구역 붉은거리소학교, 선교구역 선교소학교를 비롯한 수도의 대학, 학교들은 명절 분위기로 흥성이었다. 리계순사리원사범대학, 남포시 와우도구역 대대고급중학교, 평성중등학원, 정주시 정주소학교, 해주시 해운소학교, 순위기술고급중학교 무도분교와 새시대 사회주의농촌문명이 꽃피는 리상적인 농장도시, 문화농촌들에 훌륭히 일떠선 신의주시 하단1, 2고급중학교, 희천시 지신고급중학교를 비롯한 각지의 배움의 터전들도 새세대들의 희열과 랑만으로 설레이었다. 새 학년도 개학모임들에 앞서 대학, 학교들에서는 국기게양식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 장중한 선률속에 맑고 푸른 4월의 봄하늘가에

휘날리는 성스러운 국기를 송엄히 우리르며 학생들은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빛내이는 참된 애국자, 앞날의 기둥감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당, 정권기관, 해당 기관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아름다운 꿈과 희망, 포부를 안고 교정에 들어서서는 신입생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축하해주었다.

이어 진행된 개학모임들에서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한없이 뜨거운 열과 정으로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우리 나라는 교육으로 흥하고 번영하는 교육의 나라로 일떠서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교육자들이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정치리론적자질과 교육학적자질을 더욱 튼튼히 갖추며 올해 교육사업에서 보다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임들에서는 해빛밝은 교정에서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노력하여 혁명의 교대자, 강국건설의 역군으로 자라날 학생들의 결의가 피력되었다.

개학모임이 끝난 다음 새 학년도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 평양국제 관광기념품 및 건강제품전시회 개막

평양국제 관광기념품 및 건강제품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우리의 관광업을 나라의 경제장성과 문명발전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열린 전시회에는 경공업성, 보건성 등의 단위들과 로씨야 중국의 기업체들에서 개발생산한 다양한 공예품, 장식품을 비롯한 관광기념품, 건강제품들과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출품되었다.

개막식이 10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국가관광총국 총국장 정성일동지, 관계부처, 수출단위 일군들, 근로자들과 로씨야, 중국의 전시회대표단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가 관광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광기념품 및 건강제품개발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



힘들을 널리 보급 및 교류하며 나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강화해나가는 데서 의의있는 계기가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전시회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 2025년 2.16과학기술상, 자연과학상, 기술혁신상,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증서, 최우수발명가상수여식 진행

2025년 2.16과학기술상, 자연과학상, 기술혁신상,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증서, 최우수발명가상수여식이 3월 3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내각부총리 전승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신일철동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성빈동지, 국가과학원 원장 김승진동지, 관제부문 일군, 과학자, 기술자 등이 참가하였다.



수여식에서는 비상설 2.16과학기술상심의위원회 결정이 발표되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 10건의 대상과제들에 2.16과학기술상 상장과 메달이, 1건의 대상과제에 자연과학상 상장이, 6건의 대상과제들에 기술혁신상 상장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함흥수리동력대학,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지방공업성 식료일용연구원 식료연구소,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과학기술위원회, 농업과학원 농업화학연구소, 가금연구원 등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134명에게 2.16과학기술상 증서가 수여되었다. 국가과학원 물리학연구소 8명의 연구사들이 자연과학상 증서를, 평양건축대학, 문평제련소,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수리공학연구소, 평양산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 59명의 과학자, 기술자 등이 기술혁신상 증서를 수여받았다.

김일성종합대학 재료과학부 실장 김성무동지,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 소장 박현욱동지,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연구사 민광식동지, 함흥수리동력대학 수리공학부 학부장 신경일동지, 농업과학원 농업화학연구소 실장 리정국동지, 가금연구원 소장 홍성식동지,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과학기술위원회 연구사 현철웅동지가 2025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되고 증서가 수여되었다.

평양정향건재공장 지배인 정룡수동지, 평양건축대학 공학과학연구원 연구사 원익준동지, 김책공업종합대학 종합분석소 실장 김병훈동지 등에게 2025년 최우수발명가상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당 제9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두뇌전, 람구전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을 과학기술로 확실하게 담보해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 제 29 차 전국료리축전 진행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맞으며 제 29 차 전국료리축전이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인민봉사지도국부문, 평양시와 각 도(직할시) 급양봉사부문, 대외봉사부문과 성, 중앙기관부문, 평양시녀맹부문에서 선발된 요리사, 접대원, 가정주부들이 참가한 축전에는 600여점의 특색있는 요리와 음료,

13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출품되었다. 우수한 가공기술과 경험을 교류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된 요리전시회에서는 육류관의 평양랭면과 청류관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내놓은 연회료리들이 풍미를 잘 살린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민속명절음식전시, 지방특산료리전시, 보양료리전시 등에서 보통강구역, 평천구역, 서성구역안의 급양봉사단위들, 평안북도 신의주시사회급양관리소, 강원도 원산시 송도원유원지사회급양관리소의 요리사들이 해당 단위와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는 요리들과 음료들을 내놓아 이목을 끌었다.

료리가공의 과학화,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발명품과 창안품들이 실물과 직판물, 다매체편집물의 형식으로 요리과학기술성과전시회장에 펼쳐졌다. 요리사들과 접대원들의 경연에서 평양고려호텔, 평양호텔, 창광봉사관리소, 양각도국제호텔 등의 요리사, 접대원들이 자기들의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3일에 진행된 폐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와 각 도(직할시)에서 선발된 요리사, 접대원, 가정주부들이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상장과 메달, 증서가 수여되었다.

##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다용도유기성폐수정화제 개발도입

《민주조선》에 의하면 김책공업종합대학 나노과학기술연구소에서 효능이 높고 사용방법이 간단한 다용도유기성폐수정화제를 개발하였다. 이 정화제는 정화공정이 간단하므로 식료공장, 종이공장을 비롯하여 유기성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생산단위들의 폐수정화에 리용할수 있다. 오수정화에도 효율적인 이 첨단기술제품은 수십개 단위에 도입되어 은을 내고있다.

도입단위들에서 이 정화제를 리용해본데 의하면 정화된 폐수가 거의 중성에 가깝고 색이 맑았으며 각이한 유기오염물질이 들어있는 여러가지 폐수도 폐수배출기준대로 정화하였다.

다용도유기성폐수정화제에 대한 수요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끝)

## 국방과학연구기관들 중요무기체계들에 대한 시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과 미싸일총국은 4월 6일과 7일, 8일에 걸쳐 전자기무기체계시험과 탄소섬유모의탄살포시험, 기동형근거리반항공미싸일종합체의 전투적신뢰성검증시험, 전술탄도미싸일 산포전투부 전투적용성 및 위력평가지험을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 1 부부장인 김정식대장이 해당 시험들을 지도하였다. 김정식대장은 전자기무기와 탄소섬유탄은 여러 공간에서 각이한 군사적수단들에 결합, 적용하게 되는 전략적성격의 특수자산이라고 언급하였다.

미싸일총국 반항공무기체계연구국은 기동형근거리반항공미싸일종합체의 전투적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였다.

미싸일총국 탄도미싸일체계연구소와 전투부연구소는 전술탄도미싸일 산포전투부 전투적용성 및 새끼탄위력평가지험을 진행하였으며 지상대지상전술탄도미싸일 《화성포-11가》형의 산포전투부로 6.5~7 ha의 표적지역을 초강력밀도로 초토화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였다. 또한 저원가재료를 도입한 발동기최대작업부하시험을 위한 사격도 진행하였다. 미싸일총국은 상기시험들이 우리 무력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들로서 무기체계들을 부단히 개발 및 갱신하기 위한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의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끝)

## 전국적으로 수유나무림개조사업 전개



《로동신문》에 의하면 전국의 130여개 시, 군들에서 산림연구원과의 협동작전으로 지난 시기에 조성해놓은 수유나무림의 전면개조에 진입하여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열매생산성이 낮은 수유나무들에 우량종의 눈과 가지를 접하는 방법으로 수유나무들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범위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망라된 산림연구원 연구사들이 각지에 조성된 수유나무림의 실패를 료해한데 기초하여 도입이 불가능하다던 큰 수유나무와의 가지접, 여름철눈접을 지장없이 할수 있게 접기술을 보다 완성해나갔다.

시, 군기름나무림사업소 종업원들, 산림연구원 연구사들의 노력으로 우량종수유나무접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은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

현재 성천군, 은천군, 안주시를 비롯하여 수유나무림개조사업이 진행되고있는 전국의 시, 군들에서 작업실적이 매일과 같이 오르고있다. (끝)

## 호평받는 《가정 요리수첩》

같은 음식감을 가지고도 매번 새롭고 특색있는 요리를 맛있고 영양가높게 만들어 먹고싶어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요리상식열람프로그램 《가정 요리수첩》 2.0이 낱일이 호평을 받고있다.

《가정 요리수첩》은 다양하면서도 풍부한 요리법을 분류별로, 주제별로 열람할수 있고 식생활과 요리과정에 알고싶은 지식들에 대하여 다방면적으로 알려주어 식생활을 건강에 도움이 되게 그리고 풍족하게 해나가려는 가정주부들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다.

프로그램을 리용하여 사람들의 원기를 돋우고 시력을 높이며 치료효과에 좋은 보양료리들과 가정들에서 쉽게 해먹을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 지방별 특산음식들, 세계료리들과 관련한 1000여건의 동화상자료와 수천종의 요리들에 대한 소개와 요리법들, 요리가공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들을 열람할수 있다.

또한 고기가공요리, 나물가공요리를 비롯한 수백가지의 요리상식들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120여가지에 대한 자료도 제공해준다.

《나의 수첩》기능에서는 가정에서 보유하고있는 요리재료를 가지고 어떤 음식들을 만들수 있는가를 알려주며 완성한 요리와 그 과정을 서술한 내용을 사진과 문서로 보관할수 있다. 낱알료리, 고기료리, 남새료리 등의 분류별료리와 보양료리, 계절료리 등의 주제별료리가 서술되어있는 《가공방법》도 사람들이 즐겨찾는 항목이다.

우리과 만난 한 개발자는 당의 은정속에 지방변혁의 새시대가 펼쳐진 오늘 《가정 요리수첩》을 리용하는 지방인민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고 말하였다.

보다 윤택하고 문명할 우리의 생활을 위해 어느 가정이나 유익하고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다. 보배수첩을 안겨준 개발자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이것이 사용자들의 목소리이다.

지금 삼흥경제정보기술사와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 요리정보기술교류소에서는 요리상식열람프로그램의 기능과 자료를 갱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재일동포들 뜻깊게 경축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재일동포들이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일군들의 모임이 13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생을 기원하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탄생 114돐 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제 1부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조일연부의장, 서충언부의장 겸 국제국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리명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국장들과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간토지방 총련본부 위원장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박구호제 1부의장 겸 조직국장이 경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 조국이 주체혁명의 새로운 양양기, 거창한 새 변혁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진군을 개시한 벅찬 시기에 4월의 명절을 맞이하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기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은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과 무적의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공화국정권을 세우시여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억척같이 다져주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본땅에 끌려와 갖은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며 피눈물을 흘리던 재일동포들에게 조국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새 민주조선의 어엿한 해외동포로 따뜻이 품어안아주시였으며 참다운 민족단체이며 동포조직인 총련을 결성해주심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궤도우에 확고히 올려세워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국가의 부흥번영을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각별한 정을 기울여주고계신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총련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총련 제26차 전체대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강령적5.25서한에 명시된 새로운 투쟁기의 첫해 애국사업전반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돌려주시는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생애와 재일조선인운동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쳐주신 총련부흥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의 위대한 새 역사를 써나가는 애국애족활동에 한결같이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축하편지가 채택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14돛경축 중앙강연회가 11일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4돛을 맞으며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3억 1636만푼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련에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모두 172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503억 495만 390푼에 달한다. (끝)

## 해림시 해풍조선족로년협회 성립 40주년 경축행사 열려



4월 12일 해림시 해풍조선족로년협회에서는 성립 40주년 경축행사를 열었다. 해림시 여러 조선족협회에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현임 해풍조선족로년협회 원홍철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해림시 조선족총협회 김동철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김동철 회장은 40년전 해림시 령도간부들이 발벗고

나서서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했으며 협회 회원들이 봉사정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꾸어 지금의 규모로 발전시켜왔다고 말했다. 항상 함께 할수 있어 즐겁고 건강을 잘 챙겨 만년을 행복하게 보내자는 따뜻한 말에 모두들 감동받았다. 전임 로회장들인 박정자, 김형락이 협회가 걸어온 4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는 발언을 한뒤 축하의 문예공연을 시작하였다. 각 협회에서 준비해온 문예종목들은 다종다양하여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노래와 춤, 장단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가야금 협주, 남성소합창, 장고춤, 물동이춤, 농악무, 부채춤... 특히 전성 조선족 로년협회 문예공연에서 금상을 받은 절목인 해풍조선족로년협회 농악무는 공연을 고조예로 이끌었다.

다음 50주년 행사를 기대하면서 건강을 잘 챙기고 이를 위해서는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당부속에서 행사는 막을 내렸다.

## 빈손으로 시작해 39년 정성으로 꽃피운 두번째 인생

—장춘시 조양구조선족로인협회의 이야기



2021년, 협회 주최로 열린 당 창건 90주년 경축 홍색가요공연의 한 장면.

《협회 회원들이 빈손으로 시작해 정성으로 가꾼 <두번째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저에게도 훈훈한 감동이 밀려듭니다.》

3월 23일 기자와 만난 장춘시 조양구조선족로인협회 방채금(80세) 회장의 말이다.

《나라와 가정에 보탬이 되자는 소박한 념원》 하나로 1987년 5월 14일 출발한 이 협회는 어느덧 39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 《제 2의 보금자리》에서 피어난 황혼의 열정

협회 설립 초기 회원은 270여명, 매주 정해진 활동일에 회원들은 손뼉을 치며 협회를 부르고 집체 춤을 추며 정담을 나누었다. 시사 학습, 건강 상식, 생활의 지혜를 함께 배우며 활달하고 총명한 로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전임 회장 조규학로인은 《로인들에게 협회는 옛친구를 만나고 새 친구를 사귀며 적적함을 풀고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라고 늘 말씀했다고 방채금 회장이 회고했다. 실제로 회원들은 자신이 가꾼 채소와 정성껏 차린 음식을 갖고 와서 서로 나누며 정을 나누었다.

### 내 집처럼, 내 가족처럼... 정성으로 일군 사랑의 터전

협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회원들의 정성도 이어졌다.

《백세로인 고 한명우로인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회비와 기부금을 흔쾌히 내놓아 2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 돈을 당시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활동실로 사용하려던 건물 신축에 보탬고 우리 협회의 무용복과 악기 구입에도 사용됐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집에 있던 북, 장고, 팽파리, 손풍금은 물론 밥상, 대야, 접시, 사발 등 살림살이까지 협회에 기증하며 가난했던 협회는 점차 풍요로워졌습니다.》 방채금 회장이 격정넘치던 그때를 회상했다.



3월 28일, 방채금 회장(뒤줄 왼쪽 네번째 사람)이 조양구조선족로인협회의 일부 회원들과 함께.

고 안중원로인이 회장을 맡았던 2011년,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제 7기 운동회에서 조양구조선족로인협회 운동원 90여명의 대오는 산뜻한 복장과 씩씩한 기상으로 못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방채금 회장은 《안회장은 무용기초가 없는 로인들에게 춤을 가르쳤고 부인과 함께 형제 협회에 가서 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운영익(96세), 고 리건본 등 고문들은 항상 로인들의 앞장에 서서 활동을 이끌며 출선모범의 역할을 다했습니다.》고 말했다.

### 세대를 잇는 나눔, 사회와 함께하는 발걸음

협회는 매년 협회 설립기념일마다 85세 이상 장수로인들에게 상을 차려드리고 기념품을 전달하며 공경을 다했다. 이러한 모습에 조양구정부 관계자는 《길림성이 로령화 사회에 들어선 가운데 조양구조선족로인협회는 차세대들에게 귀중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협회의 나눔은 사회적 공헌으로도 이어졌다. 원래 조양구조선족소학교라고 불리던 현재의 룡원구조선족소학교의 한 곤란한 학생에게 4년 동안 루계로 4,000원을 지원하고 옷과 모자 등 생활필수품도 보태주었다. 또한 장춘시의 조선족 중소학교에 1,347권의 도서를 기증했는가 하면 수재를 입은 영길현조선족제1중학교에 1,500여원의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해외 교류도 활발히 펼쳐 서울시 강동구로인복지관, 충청남도 아산시로인복지관 등 한국 손님 70여명과 선후로 두차례 련환모임을 갖기도 했다.

### 잊지 못할 헌신, 귀한 발자취들

방채금 회장은 《회원들 가운데 자랑할 만한 인물이 많지만 두 분만은 꼭 꼽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협회 회원이자 전투영웅인 고 전봉덕로인은 전쟁터에서 13번이나 공을 세워 일찍 모택동 주석의 접견을 받은 인물이다. 1984년 퇴직 후에도 혁명 본색을 잊지 않고 중소학교들을 찾아다니며 전투영웅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집에 전람판을 꾸려 학생과 로인들에게 혁명전통교양을 진행했다. 또한 《국내해방전쟁》, 《해남도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 등 관련 CD 14개를 룡원구조선족소학교에 증정하기도 했다.

협회 회계를 맡고 있는 현인자로인은 《협회 살림군》이자 《퇴봉식 조장》이라 불린다. 그는 고령로인들을 자신의 부모처럼 공경할 뿐 아니라 자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독거로인 가정들을 방문했다. 조원 안경자가 중병으로 앓을 때는 자주 찾아가 말친구가 되어주고 청소와 음식 장만을 도왔다. 협회 경축활동 때마다 고기완자, 떡, 미역국, 가지밥, 과일, 과자, 사탕 등 많은 음식을 마련해 회원들과 나누었으며 무용대원들에게는 점심까지 사주며 정성을 다했다.

### 위기를 기회로, 헌신으로 빛낸 무대

《사소한 일에서 헌신의 빛을 발한 이야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방채금 회장이 말했다. 전임 문예회장인 최순녀로인은 책임감과 열정이 남달랐다. 30주년 경축활동을 앞두고 30여명 여성 회원들에게 통일 차림의 무용치마를 입히기 위해 장춘시 북방시장에서 직접 천을 사다가 집에서 몸소 재단하고 재봉침으로 견본을 만들어 여러 조장들을 지도하면서 협회의 예산을 절약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 있던 천으로 부채주머니, 록음기 커버, 방석 등을 만들어 협회에 헌납했다.

2017년, 협회 설립 30주년 경축대회 때는 식재료 준비의 돌발 변수가 생겼다. 협회 자체적으로 음식을 만들기로 결정했으나 관리 부문의 안전문제 제기로 활동실 주방 사용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최순녀는 이 임무를 자청해 일주일전부터 채소를 구입해 본

인의 집 령장고에 보관했다. 경축대회 당일, 그는 남편과 함께 밤잠을 설치며 아침 일찍 음식을 만들어 오전 8시 전에 협회에 운반했다. 그는 음식이 식을가봐 이불 두채로 꾹꾹 싸서 가져온 음식을 100여명의 손님과 회원들에게 따뜻하게 대접했다.

회원 인수가 적고 년세가 많은 협회의 여건 속에서도 최순녀는 문예회장으로서 문체활동을 다채롭게 조직해 회원들의 일치한 호평을 받고 있다.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와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에서 주최하는 문체활동에는 한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기량과 수준을 인정받았다.

/ 길림신문

## 중흥촌, 단결의 힘 모아 진흥의 청사진을 그린다

최근 국가민족사무위원회가 발표한 제 12차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구 및 시범단위 명단에 목단시 서안구 해남조선족향 중흥촌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몇년간 중흥촌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을 주선으로 삼아 민족단결진보 창설 작업과 향촌 진흥을 깊이 있게 융합시켜왔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소수민족 특색 촌락, 전국 향촌 관광 중점촌, 전국 향촌 거버넌스 시범촌, 중국 아름다운 휴향촌 등 여러 국가급 명예를 획득하며 민족단결과 산업 진흥이 상호 촉진하는 특색 있는 발전 경로를 걸어왔다.



조선족 특색 민가.

민족단결을 위한 공동 건설 력량을 결집하기 위해 중흥촌은 자원을 통합하여 《간부가 앞장서고 인재가 귀향하며 기업이 협력하고 군중이 참여하는》 창설 구도를 구축했다. 43명의 《신 유지 인사》를 유치하여 귀향 창업을 장려하고 민가, 민속 체험, 음식 시음이 하나로 어우러진 중흥 민속 풍정원을 조성했다.

이곳은 연간 160만여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며 5천만원의 영업 수익을 올려 각 민족 군중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었다.



논에서 펼쳐진 민족복장 패션쇼.

투자 유치, 협력 개발 등의 방식을 통해 중흥촌은 사회 자본을 유치하여 유희 주택지와 민가 개조에 참여토록 했고 지금까지 정품 민박 36 곳, 특색 음식점 12 곳을 개발했다. 《기업+민박》, 《협동조합+농가》의 운영 모델을 혁신적으로 도입하여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촌민들의 관광업 참여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자원을 자산으로, 촌민을 주주로 전환시켜 각 민족 군중이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몇년간 중흥촌은 산업 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번성한 산업이 민족단결진보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도록 했다. 마을 전체 경작지 4,550 무를 모두 마을 공동협동조합으로 회수하여 일괄적으로 위탁 관리함으로써 마을의 쌀 총생산량을 약 30% 가까이 높였다. 쌀 가공 선도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여 약 100명의 취업을 창출했고 벼 재배로 인한 연간 소득은 20 여만원 증가했다. 목단강시 서안구가 전국 농촌 집단 경영성 건설 용지 시장 진입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토지 가치를 높여 200 만원의 수익을 증대했다.

겨울철 빙설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흥촌은 빙설 테마파크와 벼짚 테마 공원을 조성하고 스키장을 업그레이드하였다. 겨울철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했으며 2차 소비 비중은 40%에 달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심화하여 논두렁 열차, 별빛 아래 캠핑장, 조선족 복식 체험관 등의 사업을 완성했다.

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흥촌은 새 시대 《풍교 경험》의 현지화 실천을 심화하여 마을 조정 위원회를 설립하고 전임 조정원과 마을 상주 변호사를 배치, 작은 일은 팀밖으로 나가지 않고, 큰일은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했다. 마을에 장기간 거주하며 관광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부 인력이 마을 회의, 문화 활동, 이웃 간 상호 도움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림시 체류자》를 《새로운 마을 주민》으로 변화시키고 기층 거버넌스와 단결·화합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

마을에는 조선족 민간 예술 소장 전시관, 중흥 세화관 등 소형 전시관을 건립하고 《석류씨(석류는 중국에서 민족 단결의 상징)》 문화 광장을 조성했다. 또한 마을 민속 관광 축제, 조선족 회갑연, 민족 음식 축제, 빙설 운동회 등 특색 있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각 민족 문화의 융합과 정서적 교감을 촉진하고 중화민족이 한가족이라는 리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했다.

/후룡강신문

## 4월부터 이런 새 규정 우리 생활에 영향 미쳐!

2026년 4월부터 이런 새로운 규정들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에너지차 폐기동력배터리 회수 및 종합리용 관리 잠정방법》 4월 1일부터 시행  
《차량-배터리 일체형 폐차》를 명확히 하고 폐기되는 신에너지차량의 동력배터리가 없는 경우 결실차량으로 간주한다. 폐기된 동력배터리를 직접 또는 가공하여 전기자전거 등 분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신용회복관리방법》 4월 1일부터 시행

신용불량정보를 《경미, 일반, 심각》 세가지로 나누고 경미한 신용불량정보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공시하지 않는다. 통일적으로 《신용중국》 웹사이트에서 회복신청을 접수하며 《인정한 기구가 회복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인터넷플랫폼 가격행동규칙》 4월 10일부터 시행

경영자의 자주적인 가격결정권을 보장하며 플랫폼은 상가의 가격행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명확한 가격표시를 띠고 가격규칙 공개를 추진하며 비밀번호 생략지불, 자동결제 등 행위를 규범화한다.

### 《시장감독관리 불만신고 처리방법》 4월 15일부터 시행

악의적인 보상요구를 규제하기 위해 신고자는 진실한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공시된 주소》를 기준으로 플랫폼내 경영자의 불만관할권을 확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 시행세칙》 4월 1일부터 시행

보험사기혐의는 즉시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여기에는 가짜입원, 의료보험약품 재판매, 의료보험기금 부정사용, 출산수당 사취 등이 포함된다.

###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 관리잠정방법》 4월 1일부터 시행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가 민정부문으로부터 법에 의거해 임시감독보호를 위탁받은 미성년자를 수용하고 양육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생활돌봄, 기본의료, 교육서비스, 정신건강봉사 등을 제공한다. 동시에 기구 밖의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에게 위기개입, 감독보호평가 등 봉사를 제공한다.

/인민넷-조문판

# 의무교육법 실시 40주년! 9년 의무교육 공고률 96.1%로 향상!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이하 <의무교육법>으로 약칭함)이 실시된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재 중국은 소학교교육조차 보편화되지 않았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고품질 의무교육체계를 갖춘 국가로 되었고 9년 의무교육 공고률이 96.1%로 향상되었다.

4월 10일, 2026년 전국 교육과학연구업무회의가 북경에서 열렸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사장 전조음은 우리 나라의 의무교육발전을 4개 단계로 나누었다. 제 1 단계는 《보구(普九)》로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9년 의무교육의 85%를 기본적으로 실현했고 제 2 단계는 《량기(两基)》로 2011년 모든 성에서 《보구》와 청소년문맹을 기본적으로 퇴치했다.

제 3 단계는 기본적 균형으로 2021년말까지 전국 모든 현과 구가 국가의무교육 기본적 균형발전 감독평가인정을 받았고 제 4 단계는 2022년부터 미래까지 량질의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전면적 발전의 리념이 더 뚜렷해지고 학교의 표준화 건설 정도가 더 높아지며 교사 대오가 더 강대해지고 인민군중들이 더 만족스러워하게 된다. /인민넷-조문판

## 네 부문, 2026년 쌀 최저구입가격 공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농촌부, 국가량식비축국은 련합으로 통지를 발부해 2026년 국가는 쌀주요생산구에서 계속하여 최저구매가격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량식생산원가, 시장공급, 국내외 시장가격과 산업발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6년 생산된 이른쌀(早粳稻, 3 등, 이하 같음), 중만쌀(中晚粳稻), 메쌀(粳稻)의 최저구입가격은 각각 50 킬로그램당 128 원, 129 원과 131 원이다.

통지에서는 각 성(자치구, 직할시) 관련 부문은 농민들의 합리한 재배를 인도하고 논밭관리를 강화하여 쌀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 효익증대를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민넷

## 불가피하게 장정길에 오른 중앙홍군

1934년 4월에 광창이 함락된 후 중앙홍군이 근거지내에서 국민당군대의 제 5차 《포위토벌》을 분쇄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 그 해 5월, 당중앙서기처는 중앙홍군주력을 근거지에서 퇴각시키기로 결정하고 이 사안을 국제공산당에 보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공산당은 이 결정에 동의한다는 회답을 보내왔다.

그러나 중공중앙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지도자들은 여전히 전략방침을 전환할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략적 이동의 준비작업은 극소수의 중앙지도자들 가운데서 비밀리에 추진되었다. 전략적 이동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박고, 리덕과 주은래로 구성된 《3인단》이 편성되었다. 《3인단》에서 박고가 정치문제를 책임지고 리덕이 군사문제를 책임졌으며 주은래는 군사준비계획의 실행을 독촉하는 것을 책임졌다.

중공중앙과 중앙혁명군사위원회는 적군을 분산, 견제하여 국민당군대가 중앙근거지에 가하는 압력을 줄이고 전략적이동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홍군을 두갈래의 부대로 나누어 북상, 서진하기로 결정했다.

1934년 7월, 심회주, 악소화, 속유 등이 령도한 홍군제 7군단을 《북상항일선전대》로 개칭하였고 북진을 거쳐 민절환감변구로 북상하여 방지민이 령도하는 홍군제 10군과 합류했다. 이후 홍군제 10군단이 편성되고 방지민을 주석으로 한 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그해 11월 하순, 홍군제 10군단은 두갈래로 나누어 절강, 안휘접경지대와 안휘남부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 부대는 병력이 너무 적어 중앙근거지를 향한 적군의 《포위토벌》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적의 후방에 깊숙이 진입해 10배에 달하는 적군과 처절한 전투를 벌여야 하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1935년 1월말, 홍군 제 10군단은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심회주는 전쟁중에 희생되었고 방지민은 적에게 생포되었다. 방지민은 옥중에서 《사랑스러운 중국》, 《청빈》, 《옥중일기》 등 글을 통해 숭고한 애국심과 공산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토로했으며 굴하지 않는 혁명적기개를 보여주었다.

그해 8월, 방지민은 남창에서 영웅하게 희생되었다. 홍군제 10군단의 잔여부대는 속유 등의 령도아래 민절감변구 일대를 이동하며 유격전쟁을 계속 전개했다.

이와 동시에 홍군제 6군단은 중앙혁명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1934년 7월 하순에 상감근거지를 떠나 서진했다. 중공중앙서기처가 이미 중앙근거지를 떠나 전략적이동을 결정한 상황에서 홍군 제 6군단의 서진은 진로를 정탐하는 선행 임무성격을 띠었다.

중앙홍군이 전략적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공중앙은 두차례에 걸쳐 중공악예환성위원회에 방도를 강구하여 곤경에서 벗어날 새로운 근거지를 창설할 것을 명령했다. 1934년 9월, 정자화가 악예환근거지에 도착하여 중앙의 지시를 전달했다. 그해 11월 11일, 중공악예환성위원회는 정당위원회위원 고경정이 일부무장으로 구성된 홍군제 28군단을 인솔하여 악예환변구에서 유격전쟁을 계속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중공악예환성위원회는 정자화를 군장으로, 오환선을 정치위원으로, 서해동을 부군장으로 한 홍군제 25군단의 2,900여명을 인솔하여 떠났다. 그들은 중국로농홍군 북상항일 제 2선전대의 이름으로 1934년 11월 16일에 하남성 라산현 하가총에서 출발하

여 전이하기 시작했다. 홍군 제 25 군은 10 개월에 걸쳐 4 개 성을 경유하고 1 만리 길을 전전하며 싸웠다.

그들은 1935년 9월 15일에 섬서성 연천현 연평진(오늘의 영평)에 도착했으며 9월 16일에 섬강홍군과 합류했다. 이는 홍군의 대장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섬북에 도착한 부대였다.

1934년 10월 초, 국민당군대가 중앙근거지 중심지역으로 공격해왔다. 10월 10일 밤, 중앙홍군은 전략적 이동을 시작했다. 중공중앙, 중앙혁명군사위원회 기관도 서금에서 출발하여 집결지역으로 진군했다. 10월 16일, 각 부대가 우도하 이북지역에 집결했다. 17일부터 중앙홍군주력 5개 군단 및 중앙군사위원회 기관과 직속부대 등 총 8만 6,000여명이 전략적 이동의 원정길에 올라 유명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현지에 남은 홍군제 24사와 10여개 독립탄 등 모두 1만 6,000명의 병력, 그리고 일부 당과 정부의 사업일군들은 항영, 진의 등의 령도아래 중앙근거지에서 투쟁을 이어갔다.

중앙홍군이 포위를 뚫고 전략적 이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공중앙지도자들은 퇴각 중 도망하는 오유를 범했다. 그들은 전략적 이동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정치국회의를 열거나 토론을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간부와 전사들에게 정치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이 전략적 이동은 마치 단순한 이사처럼 진행되고 말았다. 이때 홍군은 인쇄기나 군사공업기계와 같은 중장비를 대거 거느리고 떠났으므로 대오가 방대하고 부담이 가중되어 행동이 느렸으며 행군과 작전에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중앙홍군은 원래의 계획대로 호남서부로 이동하여 홍군제 2군단, 제 6군단과 합류하려고 했다. 부대는 기본적으로 홍군제 6군단이 걸은 행군로선 즉 강서, 광동, 호남, 광서 접경지대의 오령산맥을 따라 줄곧 서쪽으로 진군했다. 국민당당국은 이를 파악한 뒤 강서남부, 호남, 광동 접경지대, 호남동남부, 호남, 광서 접경지대에 네겹이나 되는 봉쇄선을 구축하고 많은 병력을 배치하여 홍군의 진로를 차단하고 뒤에서 바짝 추격해왔다. 그러나 각 지역의 적군사이에 복잡한 갈등이 있어 홍군을 차단하고 추격하는데 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중앙홍군이 이동을 개시하기 전인 9월 말, 중앙혁명군사위원회 주석 주덕은 광동군벌 진제당에게 서한을 보내 내전중지, 무역회복, 무기대리구입 그리고 항일하고 장개석을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수립할것에 관하여 비밀리에 담판하겠다고 표명했다. 10월 5일, 중공중앙, 중앙혁명군사위원회는 반건행(반한년), 하장공을 대표로 파견하여 진제당의 대표와 심오에서 회담을 가졌다. 그들은 즉각 휴전, 정보교환, 봉쇄해제, 상호통상, 필요시 진로 제공 등 다섯가지 협상을 체결했다.

그 결과 중앙홍군이 적군의 첫번째 봉쇄선을 뚫고 광동관내에 진입했을 때 진제당 부대는 기본상 앞길을 차단하지 않았다. 뒤이어 홍군은 비교적 순조롭게 두번째 봉쇄선을 통과했다. 홍군이 세번째 봉쇄선을 돌파하고 광서상강지역으로 진군하자 장개석은 상강일대에 이미 25개 사에 수십만명의 대군을 집결시켜 다섯갈래로 나누어 진로를 차단하고 뒤에서 바짝 추격해 홍군을 상강일대에서 소멸하려 했다. 이처럼 적의 대병력이 급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고, 리덕은 속수무책으로 부대에 우격다짐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할 뿐이었다. 11월 25일, 중앙혁명군사위원회는 광서 전주, 홍안사이에서 상강을 강행도하하기로 결정 했다.

이곳이 바로 국민당군대의 네번째 봉쇄선이였다.

상강전역은 중앙홍군의 생사존망과 직결되는 관건적인 전역이었다. 홍군의 많은 간부, 전사들은 국민당군대와 결사적으로 싸웠다. 11월 27일, 홍군의 선두부대가 상강을 건너 나루터를 통제했으나 대부대는 가지고 온 짐이 너무 많아 진군 속도가 크게 늦어졌고 결국 상강을 건너기도 전에 우세한 적군의 협공을 받기 시작했다.

홍군의 각 군단은 상강을 강행도하하기 위해 적들과 혈전을 벌려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상강량안에 배치된 부대는 중앙령도기관과 기타 부대의 도강을 엄호하기 위해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렸지만 막대한 희생을 냈다. 12월 1일, 국민당군대는 전반 전선에서 총공세를 펼치며 나루터를 탈취하고 홍군을 상강량안에서 포위섬멸하려고 했다. 홍군은 온종일 혈전을 벌려 적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당일 17시에 중앙령도기관과 홍군 대부대가 상강을 건넜다. 엄호임무를 맡은 홍군제 5군단 제 34사와 홍군제 3군단 제 18탄은 상강 동쪽기슭에서 포위된 후 탄약과 식량이 바닥나 대부분 장렬히 희생되었다.

상강전장은 중앙홍군이 장정에 오른 후 치른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 굶주리고 지칠대로 지친 홍군은 꼬박 다섯주야의 악전고투를 거쳐 적이 집중배치된 네번째 봉쇄선을 돌파했고 장개석의 군대가 중앙홍군을 상강에서 포위섬멸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분쇄해버렸다. 하지만 그대가로 홍군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장정출발 당시 8만 6,000여명에 달했던 중앙홍군과 중앙기관인원은 상강을 건너 후 3만여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때 국민당당국은 홍군이 호남, 광서변경을 따라 호남서부로 북상하여 홍군제 2군단, 제 6군단과 합류하려는 의도를 미리 간파했다. 그래서 즉시 정보, 신녕, 통도수녕, 정현, 무강, 지강, 금양, 홍강 지역에 또치까를 구축하고 수많은 병력을 집결시켜 중앙홍군을 일망타진할 태세를 갖췄다. 그러나 박고와 리덕은 적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원래 계획에 따라 전진하고 이동했다. 이로하여 홍군은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진로를 긴급히 수정하지 않으면 전군이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긴박한 고비에서 모택동은 적아쌍방의 군사태세에 근거하여 원래의 북상합류계획을 포기하고 진로를 서쪽으로 돌려 적의 세력이 약한 귀주로 진군하여 새로운 근거지를 창설할것을 건의했다.

1934년 12월 12일, 중공중앙책임자는 호남통도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 참가한 장문천, 왕가상, 주은래 등 다수동지들은 모택동의 제안에 찬성하고 지지했으나 리덕 등은 한사코 반대했다. 회의후 박고와 리덕은 여전히 상서로의 진군을 고집했다. 12월 18일, 중앙정치국은 귀주 려평에서 회의를 열었다. 격렬한 토론 끝에 모택동의 건의가 회의에 참석한 다수동지들의 찬성을 얻었고 《전략적 방침에 대한 중앙정치국의 결정》이 통과되었다. 회의 후, 홍군은 귀주 중심부를 거쳐 귀주북부로 전진해 련이어 금병 등 7개 도시를 공략하고 12월말에 오강남안의 후장을 점령했다.

12월 3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공중앙은 후장에서 정치국회의를 열고 《도강후의 새로운 행동방침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먼저 준의를 중심으로 하는 귀주북부지역에서, 다음으로 사천남부에서 천금변구라는 새근거지를 창설하는 전략적 과업을 제기했다. 회의는 또 작전방침 및 작전시간과 지점의 선택에 있어서 군사위원회는 반드시 정치국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군사위원회에 대한 정치국의 령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 결정은 사실상 박고, 리덕의 군사지휘권을 박탈한 조치였다. 회의후 홍군은 오강을 건너 국민당의 《추격토벌군》을 오강 이동과 이남 지역에서 따돌리고 1935년 1월 7일, 귀주북부의 요충지인 준의성을 공략했다.

/로인세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왕의동지와 회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인 최선희동지가 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인 왕의동지와 회담하였다.

최선희동지는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이룩하신 중요합의에 따라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활력있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사회주의라는 공동의 리념을 근본초석으로 하고있는 조중친선을 두 나라 인민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해나가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왕의동지는 습근평동지와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력사적인 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시고 중조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리정표적인 의의를 가지는 근본지침을 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친선을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강조하였다.

쌍방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돛이 되는 올해에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더욱 심화시키며 두 나라 대외정책기관들사이의 전략적의사소통과 지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성 부상 김명수동지를 비롯한 외무성 일군들이, 중국측에서 외교부장일행,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아군동지가 참가하였다. (끝)

/조선중앙통신

##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일행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꽃바구니 진정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인 왕의동지와 일행이 10일 강동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아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김명수동지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아군동지가 동행하였다.

렬사릉원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일행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려사릉원 추모비에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땀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은 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한 성전에서 용감하게 싸운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려사릉원을 돌아보았다. (끝) /조선중앙통신

##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업적토론회 중국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4돛에 즈음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업적토론회가 13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주보중의 딸 주위, 풍중운의 아들 풍송광, 상월선생의 아들 상소위, 리재덕의 아들 우명

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담은 영상사진문헌들을 돌아보았다. 토론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위업실현을 위해 분투하신 고결한 생애였다고 하면서 간고한 항일대전과 가렬치절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전후 재더미만 남았던 폐허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오늘 조선은 김정은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다, 결출한 위인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이 더더욱 부강번영하고 인민들은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를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끝) /조선중앙통신

## 金燕光总领事同领区侨校教师座谈

2026年4月20日，金燕光总领事同领区清津中国人高级中学教师座谈，咸镜北道华联会委员长林基荣参加。



双方就侨校的办学方向、教育宗旨及有关事项进行了广泛深入交流。

金燕光总领事强调要重视中文教育，将侨校学生培养成为继承中华优秀传统文化、助力中朝友好的栋梁之才。

老师们表示将不负祖国、政府和人民的重托，努力工作，育人树才，不断提升学校教学水平，把学生们培养成有用之材和中朝友好接班人。

/中国驻朝鲜大使馆

## 호르모즈해협,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해상 석유 수송 요충지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한 이후 호르모즈해협의 항운은 거의 완전히 중단됐으며 중동지역의 석유 수송도 계속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16일 기자들에게 유럽 국가들과 일본, 한국 등이 호르모즈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데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일부 국가들이 이에 대해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해사 데이터 분석 서비스 업체인 《영풍회사》(迎風公司)의 15일 자료에 따르면 14일 하루 동안 단 한척의 선박도 호르모즈해협을 통과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쟁전에는 하루 평균 77척의 선박이 이 해협을 통과했다.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15일 밤 국제원유 선물은 새 주간 거래를 시작하며 가격이 다시 바렐당 100 달러선을 돌파했다. 국지적 긴장이나 전쟁이 터질 때마다 호르모즈해협에서는 거의 제외없이 수송이 차질을 빚거나 중단되곤 했으며 이는 곧바로 세계 유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풍부한 석유 자원을 보유한 해만 국가들은 과연 석유 수출을 위한 다른 경로를 모색해본 적이 있을까? 세계 석유 수송의 해상 요충지인 호르모즈해협은 정말 대체 불가능한 것일까? 송유관 손에 꼽을 정도 송유관은 호르모즈해협을 우회하여 석유를 수송하는 주요 대안이지만 이 지역의 송유관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주로 아랍추장국련방(UAE)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두 송유관이 있을 뿐이다. UAE의 《아부다비 원유 파이프라인》은 서쪽으로 이 나라의 주산지인 합산(哈卜善)유전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푸자이라(富查伊拉)항구까지 연결되는데 2012년 7월에 정식 가동되었다. 이 파이프라인은 총길이 420킬로미터로 육상 구간이 약 405킬로미터이고 해저 구간이 13.6킬로미터이며 룩지에서 페르샤만과 오만만을 연결하여 호르모즈해협을 우회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착공되었는데 동쪽으로는 이 나라의 동부 페르샤만 산유지역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는 홍해 연안의 안부(延布)항구까지 이어지며 총길이가 1,200킬로미터를 넘는다. 사우디 국가석유회사(아람코)의 총재 겸 수석집행관 아민 나세르는 최근 회사의 최대 지속 생산능력은 하루 1,200만바렐에 달하며 동서 송유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평소 호르모즈해협을 통해 반출되던 원유 및 경유 등 석유 제품의 4분의 1 이상이 주로 이 두 송유관을 통해 해만지역 밖으로 반출되고 있다. 미국 소비자뉴스및상업 채널이 에너지 분

석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호르모즈해협을 통해 수송되는 석유는 보통 하루 2,000 만바렐이다.

이에 비해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의 수송 능력은 하루 약 700 만바렐에 가깝지만 이중 200 만바렐은 서부 정유공장에 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500 만바렐만 수출에 사용된다. UAE 《아부다비 원유 빠이프라인》의 정격 수송량은 하루 150 만바렐이다.

그러나 석유 기반시설이 군사적 공격을 받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에네르기 분석가들은 이 빠이프라인의 현재 실제 수송량을 정격 수송량의 7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호르모즈해협은 대체 불가능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4일 호르모즈해협을 우회하여 석유를 수송하려면 많은 해만 국가들이 국경을 넘는 송유관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리적 조건,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국경을 넘는 송유관 건설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까다롭다》. 기사는 카타르의 경우를 예로 들며 2017년에 이웃 국가인 UAE와 단교했다가 2023년에야 복교했다고 설명했다.

호르모즈해협을 피한다고 해서 어떤 송유관도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영국석유회사의 전 수석집행관 존 브라운은 석유 및 가스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완전히 안전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9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이 예멘 후티무장의 공격을 받아 수송이 중단된 적 있다.

송유관 건설외에도 통합된 철도 수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하는 또 다른 선택지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10년 넘게 제기되어왔지만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NYT의 시각으로는 송유관 건설에 비해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석유 수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로 경제적, 정치적 제약을 넘어설 수 없다. 미국의 석유 수출 저지에 대응하여 이란도 2021년 7월 호르무즈해협을 룩스로 우회하여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송유관을 가동했다.

이 빠이프라인은 길이가 1,000킬로미터에 달하며 서쪽으로는 이란 부셰르성(布什尔省)의 고클레(戈勒)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는 오만만의 자스크(贾斯克)항구까지 연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해협은 여전히 세계 석유 수송에서 대체 불가능한 해상 요충지이다. 페르시아만으로 통하는 유일한 외부 통로로서 세계 해상 석유 무역량의 4분의 1 이상,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이 해협을 통해 전세계로 수송된다. 국제에네르기기구 추정에 따르면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모즈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수송량은 급감하여 전쟁전 수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송 경로가 막히면서 많은 석유 수출국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노르웨이의 컨설팅업체 리스타드(睿咨得)에네르기회사는 이라크, 쿠웨이트, UAE,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량이 일주일 남짓 만에 총 수백만바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에네르기기구는 11일 기준으로 이 지역 산유국들의 하루 총 감산 규모가 최소 1,000 만바렐에 달하며 이는 세계 석유 공급량의 10%에 해당한다고 추정했다.

많은 석유 기업들의 정제 설비 가동 중단 또는 감산으로 인해 휘발유, 경유, 항공유의 생산량도 감소되고 있다.

/신화넷

## 일본의 무력증강책동을 규탄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1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무력증강책동을 규탄하였다.

일본이 중국령해와 린접한 지역에 반항공미사일부대를 전개하려는것과 관련하여 대변인은 《방어》와 《반격》의 간판밑에 해당 지역에 미싸일을 비롯한 일련의 공격적인 장비들을 배비하는것은 사실상 군사적대결의 전연요새를 구축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것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익세력의 추동밑에 일본의 안보정책은 공격적이고 팽창적이며 위험한 방향으로 전환되고있으며 《자위》와 《전수방위》의 범주를 훨씬 초월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중국은 일본이 군국주의침략력사를 깊이 반성하고 군사안전령역에서 자기가 한 약속을 엄격히 지킬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제사회는 경각성을 높이고 일본의 재군사화와 《신군국주의》 경향을 단호히 억제해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로씨야태평양함대 중국남해수역에서 군사훈련 진행

로씨야태평양함대 함선집단이 최근 중국남해수역에서 포사격을 동반한 종합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과정에 초계함들로 구성된 함선집단의 승조원들은 해상전투진행방법과 잠수함탐색을 위한 기동방법, 무인정과 무인기공격격퇴방법 등을 련마하였다.

또한 가상적의 함선을 모방한 해상목표들에 포사격을 가하였다.

로씨야는 미국과 그 추종국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있는데 대처하여 해군의 원양작전능력을 높이는데 계속 힘을 넣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이스라엘호전광들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공격 계속 확대



이스라엘호전광들이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계속 확대하고있다. 12일 이스라엘수상과 국방상이라는자는 레바논에 국력량조직인 히즈볼라호의 무장해제라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격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폭언하였다.

이날 이스라엘살인마들의 공격만행으로 레바논전역에서 35명이 살해되고 152명이 부상당하였다. 이스라엘군은 13일에도 히즈볼라

호의 군사대상물들을 겨냥한 지상작전을 감행하여 100여명을 살해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히즈볼라호가 이스라엘의 북부지역을 향해 미사일공격을 가하였다. 국제사회는 레바논에서 피비린 살육전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이스라엘유대복고주의자들의 불법무법의 범죄적죄행을 신랄히 단죄하며 군사행동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门捷列夫



德米特里·伊万诺维奇·门捷列夫（1834年2月8日—1907年2月2日），出生于俄罗斯西伯利亚托博尔斯克，俄国科学家，元素周期律奠基人。

门捷列夫出生那年，他的父亲就失明了，并于1847年去世。为了养家糊口，母亲不得不经营着家族在附近城镇拥有的小玻璃厂。1848年12月，玻璃厂发生了火灾，母亲只好带着全家，从乡下重回市区。

1849年，门捷列夫中学毕业。为了儿子能上大学，母亲变卖财产带着孩子们来到莫斯科。可是莫斯科的大学没有接纳门捷列夫，母亲前往圣彼得堡，让他进入著名的教育学院学习。不久之后母亲也去世了。

门捷列夫读的是物理系，过了一年，转入化学系学习。1854年，门捷列夫毕业。

1859年赴德国海德堡大学深造。

1865年任圣彼得堡大学化学技术教授，1878年参与创办托木斯克帝国大学（现托木斯克国立大学）。

1869年门捷列夫发现了元素周期律，在世界上留下了不朽的光荣，人们给他以很高的评价。攀登科学高峰的路，是一条艰苦而又曲折的路。

他不分昼夜地研究着，探求元素的化学特性和它们的一般的原子特性，然后将每个元素和它们的原子数量记在一张小纸卡上。

他企图在元素全部的复杂的特性里，捕捉元素的共同性。但他的研究，一次又一次地失败了。可他不屈服，不灰心，坚持干下去。

为了彻底解决这个问题，他又走出实验室，开始出外考察和整理收集资料。1859年，他去德国海德堡进行科学深造。

1862年，他对巴库油田进行了考察。1867年参观和考察了法国、德国、比利时的许多化工厂、实验室，大开眼界，丰富了知识。

门捷列夫又返回实验室，继续研究他的纸卡。他把重新测定过的原子量的元素，按照原子量的大小依次排列起来。他发现性质相似的元素，它们的原子量并不相近；相反，有些性质不同的元素，它们的原子量反而相近。他紧紧抓住元素的原子量与性质之间的相互关系，不停地研究着。

在1869年2月19日，他终于发现了元素周期律。他的周期律说明：简单物体的性质，以及元素化合物的形式和性质，都和元素原子量的大小有周期性的依赖关系。门捷列夫在排列元

素表的过程中，又大胆指出，当时一些公认的原子量不准确。如那时金的原子量公认为 196.2，按此在元素表中，金应排在铊、铋、铂的前面，因为它们被公认的原子量分别为 198.6、196.7、196.7，而门捷列夫坚定地认为金应排列在这三种元素的后面，原子量都应重新测定。大家重测的结果，铊为 190.9、铋为 193.1、铂为 195.2，而金是 197.2。实践证实了门捷列夫的论断，也证明了周期律的正确性。

在门捷列夫编制的周期表中，还留有很多空格，这些空格应由尚未发现的元素来填满。门捷列夫从理论上计算出这些尚未发现的元素的最重要性质，断定它们介于邻近元素的性质之间。例如，在铊与砷之间的两个空格中，他预言这两个未知元素的性质分别为类铝和类硅。

就在他预言后的四年，法国化学家发现了镓。镓的性质非常像铝，也就是门捷列夫预言的类铝。镓的发现，具有重大的意义，它充分说明元素周期律是自然界的一条客观规律；为以后元素的研究，新元素的探索，新物资、新材料的寻找，提供了一个可遵循的规律。元素周期律像重炮一样，在世界上空轰响了。

德米特里·伊万诺维奇·门捷列夫发现的元素周期律，为我们学习化学建立了元素观，也为当时的未知元素在“元素帝国大厦”中预留了“房间”。对元素镓、铟和铊的成功预测，也为他赢得了口碑。门捷列夫成就如此卓著，却从没获得过诺贝尔化学奖，为此，后人感到不平。

门捷列夫发现了元素周期律，在世界上留下了不朽的光荣，人们给他以很高的评价。人们为了纪念他的功绩，就把元素周期律和周期表称为门捷列夫元素周期律和门捷列夫元素周期表。由于时代的局限性，门捷列夫的元素周期律并不是完整无缺的。

1894 年，稀有气体氩的发现，对周期律是一次考验和补充。元素周期律经过后人的不断完善和发展，在人们认识自然，改造自然，征服自然的斗争中，发挥着越来越大的作用。

门捷列夫除了发现元素周期律外，还研究过气体定律、气象学、石油工业、农业化学、无烟火药、度量衡，由于他的辛勤劳动，在这些领域都不同程度地做出了成绩。

1862 年，门捷列夫结婚，育有女儿奥丽佳与儿子弗拉基米尔。1907 年 2 月 2 日，因心肌梗塞在彼得堡与世长辞，享年 72 岁。

1905 年获英国皇家学会科普利奖章。

苏联科学院于 1962 年设立了德米特里·伊万诺维奇·门捷列夫金奖以表彰在化学和化学技术领域取得最佳成果的人士。

1955 年人工合成的 101 号元素钆 (Md) 以其姓氏命名，2019 年联合国大会宣布为国际化学元素周期表年以纪念周期表发表 150 周年。

元素周期表																		0	电子层数	电子数																																																				
1	IA	1	H	1.008	2	IIA	2	He	4.003	K	2	2	2																																																											
2	3	Li	6.941	4	Be	9.012	10	B	10.81	11	C	12.01	12	N	14.01	13	O	16.00	14	F	19.00	15	Ne	20.18	L	K	8	2	8	2																																										
3	11	Na	22.99	12	Mg	24.31	19	K	39.10	20	Ca	40.08	21	Sc	44.96	22	Ti	47.87	23	V	50.94	24	Cr	52.00	25	Mn	54.94	26	Fe	55.85	27	Co	58.93	28	Ni	58.69	29	Cu	63.55	30	Zn	65.38	31	Ga	69.72	32	Ge	72.61	33	As	74.92	34	Se	78.96	35	Br	79.90	36	Kr	83.80	M	L	K	8	2	8	2					
4	37	Rb	85.47	38	Sr	87.62	55	Cs	132.9	56	Ba	137.3	71	La-Lu	138.9	72	Hf	178.5	73	Ta	180.9	74	W	183.8	75	Re	186.2	76	Os	190.2	77	Ir	192.2	78	Pt	195.1	79	Au	197.0	80	Hg	200.6	81	Tl	204.4	82	Pb	207.2	83	Bi	209.0	84	Po	[209]	85	At	[210]	86	Rn	[222]	N	M	L	K	8	2	8	2	8	2		
5	87	Fr	[223]	88	Ra	[226]	101	Md	[288]	102	Nb	[286]	103	Ta	[284]	104	Rf	[281]	105	Db	[283]	106	Sg	[281]	107	Bh	[284]	108	Hs	[285]	109	Mt	[288]	110	Ds	[285]	111	Rg	[284]	112	Cn	[285]	113	Nh	[284]	114	Fl	[285]	115	Mc	[286]	116	Lv	[286]	117	Ts	[287]	118	Og	[289]	O	P	N	M	L	K	8	2	8	2	8	2



## 창 조 리

창조리는 고구려 봉상왕(292-300)때의 재상이었다. 그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왕의 비위와 위엄에 주저하지 않고 왕의 잘못을 제때에 충언으로 간하여온 대바른 관리로 력사에 전해오고있다.

### 한명의 관리로

창조리가 고구려의 국상으로 있을 때인 296년 가을 어느날이었다. 이날 고구려 봉상왕이 여러 신하들을 궁실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모용의 군사들이 우리 변경에 자주 침입하므로 나라가 늘 불안하니 이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왕은 신하들에게 나라의 큰 걱정인 모용의 침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모용이란 고구려 서북쪽에 린접하고있던 모용선비족으로 이때에 자주 고구려에 침입하여 백성들을 살해하고 재물들을 빼앗아가곤 하였다.

모용선비족이 바로 3년전인 293년에도 변경에 쳐들어왔는데 봉상왕이 그를 몰아내려고 신성에까지 출동하였다가 적의 우세로 말미암아 도리어 공격을 받고 곡립까지 피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때 신성의 성주인 북부소형 고노자가 기병 500여명을 거느리고 왕을 맞이하고 반격을 가하였으므로 봉상왕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모용선비족의 침입을 물리칠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모용선비족이 바로 며칠전에 또다시 침입하여와서는 서천왕의 무덤을 파헤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때는 다행히도 무덤을 파던 모용의 군사들이

갑자기 저절로 죽어넘어지고 파헤친 무덤 안에서 《풍악소리》가 울려나와 귀신이 있는것이라고 놀래여 달아났으므로 더 큰 피해는 입지 않았던것이다.

모용선비족이 변경에서 이렇게 날치며 소요를 일으키고있으니 고구려의 걱정이 아닐수 없었다.

《모용의 군사들의 침노를 막아낼 방책에 대하여 생각되는것이 있다면 어서들 말해보아라.》

왕이 이렇게 독촉하자 한들의 신하들이 의견을 내놓았다. 어떤 신하는 나라의 군사를 변경에다가 더 많이 상주시키자고 하였고 어떤 신하는 군사를 더 징발하여 변경을 강화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 의견들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나라의 군사를 변경으로 집중시키면 수도를 비롯한 나라안의 방비가 허수하여 지므로 그것은 나라가 더욱 위태로워질수 있는 일이기에 취할수 없는 방책이라고 하였고 더 많은 군사를 징발하자는것은 당시 흉년이 거듭 들어 백성들이 기근에 빠지고 나라의 재정도 고갈되어있으므로 나라에 속병을 더 들게 하는 일이라고 합당치 못하다고들 하였다.

《그럼 모용의 군사들을 막을 방도가 없단말이냐?》 왕은 한탄조로 여러 신하들

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때 국상 창조리가 한걸음 나서며 입을 열었다.

《소신에게 한가지 생각이 있나이다.》  
《어떤 생각이냐?》

《국경에 군사를 더 보낼수 없고 나라 형편으로 군사를 더 징발할수 없는 사정에서 오직 한가지 방도는 변경을 맡길만한 관리를 적합한 사람으로 뽑아 임명하는것이라고 생각하나이다.》

《한명의 관리를?---》

신하들은 어리둥절해서 창조리를 바라보았다. 나라의 걱정을 어찌 한사람의 관리를 임명하는것으로 막을수 있는가 하는 의문의 눈길이었다.

왕도 리해되지 않는듯 창조리에게 물었다.

《나라의 위기를 어찌 한사람의 관리를 선발하는것으로 풀수 있겠느냐---?》 이에 창조리는 조리있게 대답하였다.

《지붕을 없으려면 서까래보다 적중한 대들보를 먼저 마련하여야 하는 법이 옵니다. 군사를 아무리 늘이고 징발한다고 하여도 그를 맡아 거느릴 장수가 없이는 승산을 볼수 없나이다. 그러니 변경을 지켜낼만한 지략과 담력을 가진 사람을 골라 맡기는것이 선차이라고 보나이다.》

《그렇지!》왕이 이렇게 긍정하자 여러 신하들도 일리있는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럼, 그런 책임자로 누구를 천거했으면 좋겠느냐?》 왕이 묻자 창조리는 선뜻 대답했다.

《신성의 성주인 북부소형 고노자가 책임자라고 생각하나이다.》

《고노자?》 왕도 그때 일을 잊지 않는듯 대뜸 고노자를 상기하였다.

《네, 그에게 변방의 방어임을 맡기고 돌보아주면 자기의 지략과 담력을 다 발휘할테니 더 넘려될 일은 없을듯 하옵니다.》

여러 신하들도 모두 찬동하여 왕은 고노자를 신성태수로 삼고 모용의 군사의 침입을 막을 임무를 주었다.

고노자는 원래 위풍과 명성이 있는지라 태수로 되어 지략을 펴가며 정사를 하고 변방의 방어를 강화하니 백성들이 따랐고 모용선비족은 두려워 다시 침노하는 일이 없었다.

한명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나라의 걱정이 덜어지자 여러 신하들과 나라 백성들은 국상인 창조리야말로 정사를 할줄 아는 지략을 갖춘 재상이라고 칭송하여 그 이름이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 신하로서 후회없을 일

고구려 봉상왕이 왕위에 오른지 9년째가 되는 300년 8월 어느날이었다.

왕의 정사가 잘못되어나가는것을 보고 신하의 본분으로 입을 다물고 가만있을수 없었던 창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여러번 생각을 거듭하던끝에 이날 드디어 기어이 간언하리라 마음을 먹고 왕에게 접견을 청하였다.

봉상왕은 왕위에 오른지 여러해가 지나자 점점 안일하여져 사치하고 화려한 생활만을 즐기려 하였다. 그리하여 몇해전부터 궁궐을 꾸리는데 나라의 재정을 탕

진하기 시작하였고 15살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남녀들을 동원하여왔다. 그런데다 이해 2월부터 7월까지 비한방을 내리지 않아 백성들의 살길은 막연하였다. 부역에 지치고 먹을것이 떨어진 백성들의 원성은 날을 따라 높아갔다.

이에 대하여 여러 신하들이 간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여러 신하들을 내쫓았으며 형벌도 가하였다.

앞으로 나라와 백성들의 위기가 어느 정도에 이를것인가 하는것이 불보듯 명백

한 시기였다. 이런 순간을 더 넘길수 없다고 생각한 창조리는 드디어 왕에게 접견을 청했던것이였다.

《국상은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짐에게 접견을 청하였는고?--》

왕은 요즘에 와서 정상적으로 별려오던 정사날모임도 폐기하고 단지 나라에 급한 일이 있을 때에만 왕의 접견을 허락한다고 하였던것이다. 그래서 창조리를 만나자부터 왕은 이렇게 물었던것이다.

《급한 일이읍니다.》 《무슨 일인고?》

《대왕님께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하셔야 하리라 보나이다.》

《또 그런 소리인고? 그것이 어찌 급한 일인고? 그런 소리를 하려면 돌아가거라.》

《아니읍니다. 한나라의 임금에게서 백성들에 대한 생각보다 더 급한것이 어디 있겠소이까. 예로부터 일러오기를 백성이 있어 임금이 있다고 하였나이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의 재앙이 거듭 들어 농사를 결판내여 나라의 백성들은 먹을것이 없어 사방으로 방황하고 있으니 그들이 이제 모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없어진다면 대왕님은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유지하겠나이까. 나라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하기 바라나이다. 그리하여 우선 궁지에 빠진 백성들을 더욱 고달프게 하고 나라의 재물을 소비하는

궁궐의 토목공사를 중지하는것이 급선무라고 보나이다.》 창조리가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궁궐공사에 대한 말이 나오자 왕은 발끈 성을 내였다.

《궁궐이란 백성들이 우러러보는바인데 궁궐이 웅장화려하지 않고서야 임금의 위엄과 무게를 보일수 있겠는고! 그래 바로 궁궐수축은 짐을 위한 일인데 어찌 그러다고만 생각하고, 신하로서 그게 무슨 심보인고! 국상은 짐을 비방함으로써 백성들에게서 칭찬을 구하자는 심보가 아닌가?!》

《임금의 잘못을 간하지 않는것은 신하로서 충성스럽지 못한것이고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것은 임금으로서 어질지 못한 일이읍니다.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어짐을 다하고 신하는 신하로서의 충성을 다하려는것이 소신의 마음이니 어찌 감히 칭찬을 구하겠나이까.》

왕은 그만 말문이 막히여 머뭇거리더니 호통쳤다.

《국상은 끝내 백성을 위해 죽으려는가? 후회치 말라!》

《대왕님을 바로 도우려다 죽는것이 어찌 후회되겠나이까.》

《뉘라구?》 《임금을 바로 돕자고 간하다 죽음을 당한 신하를 두고 후세에 그 누가 탓하겠나이까.》

봉상왕은 더 말을 못하였다.



## 벨라루씨

벨라루씨는 유럽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국가이다.

벨라루씨의 동부는 로씨야, 북부는 리뜨바, 라뜨비아, 서부는 폴스까, 남부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있다. 면적은 20.76 만 평방키로메터로서 6개 주와 1개 직할시(민스크)로 나뉘고 인구는 1027.8만명이고 수도는 민스크이다. 공용어는 벨라루씨어와 로씨야어이다. 벨라루씨인구의 70% 이상이 그리스종교를 믿고 서북부의 일부지역에서는 천주교를 믿는다. 다민족국가로서 벨라루씨족이 84.9%를 차지하고 로씨야, 폴스까,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벨라루씨의 지형은 대부분이 평원이며 북서쪽에는 일부 작은 구릉이 있다. 드네쁘르강을 비롯한 크고 작은 강들이 있고 호수가 많다. 대부분 지역이 온대 대륙성 습윤한 기후에 속한다. 석유, 천연가스, 니란, 칼리움염 등 광물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산림피복률은 약 33%이다. 벨라루씨인은 동슬라브족의 한 갈래이다. "벨라루씨"라는 명칭은 13세기 후반에 출현되었다. 13세기 중반부터 18세기 말까지 리뜨바대공국과 폴스까-리뜨바왕국에 정복되었다. 이시기에 벨라루씨의 언어와 글이 형성되었다. 18세기부터는 짜리로씨야에 병합되었다. 1919년 1월에 벨라루씨소베트사회주의공화국이 세워지고 1922년 12월 30일에 로씨야련방, 외자깡까즈련방, 우크라이나와 함께 소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방(소련)을 창건하였다. 벨라루씨의 공업과 농업의 비교적 발전하였다.

공업에서 기계제조가 위주를 이루며 전자, 계측기, 화학, 목재가공 등이 있다. 식품업과 농업, 목축업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감자를 많이 심는다.

1990년 7월 27일 벨라루씨최고소베트는 주권선언을 발표하고 1991년 9월 19일 국호를 벨라루씨공화국으로 고치고 12월 8일 독립국가련합체(독립련합)의 창건국으로 되었다.

1994년부터 대통령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그해 7월 알렉산드르 루카셴꼬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96년 11월, 벨라루씨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2001년까지 연장하였다.

2001년 9월, 루카셴꼬가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선거되었다.

2004년 10월, 벨라루씨는 국민투표와 의회 선거를 실시하여 대통령 임기 제한에 관한 헌법규정을 폐지하였다. 2006년 3월, 2010년 12월, 2015년 10월, 2020년 8월, 2025년 1월, 루카셴꼬는 련속 대통령으로 선거되었다.

벨라루씨는 【의회】를 국민회의라 칭하고 공화국원(상원)과 대표원(하원)으로 구성되어 임기가 각각 5년이다. 제 8기 국민회의는 2024년에 구성되었다.

공화국원은 총 64명의 대표로, 그 중 56명은 전국 6개 주와 1개 도시(민스크)의 지방국민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8명씩 선출하며 나머지 8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표원은 총 110명의 대표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벨라루씨는 1992년에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2026년 3월 벨라루씨 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꼬가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벨라루씨공화국사이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쌍방사이의 외교, 공보, 농업, 교육,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합의문건들이 체결되었다.

## 아라비아수자



진정한 첫 과학자로 불리우는 갈릴레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주의 모든것은 수학언어로 씌여져있다.》

실지로 수학은 우주의 수많은 비밀들을 밝혀내는데 기여하였으므로 문명을 전진시켰다.

### 영 (0)의 기원

아라비아수자는 원래 고대인디아인들이 발명한것으로서 인류의 문명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실지로 로마수자들은 몇해동안 수학의 발전에 지장을 주었다.

놀라울 정도로 독특한 인디아식계산방법이 유럽에 전해짐으로써 수학은 자기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고대시기 합계를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슬이나 돌들을 줄지어 배열한 계산도구인 주산을 리용하는것이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고대그리스인들은 굉장히 큰 수를 상상해낼수 있었지만 그것을 표시할 방도를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0>을 몰랐기때문이었다.

이를 통해서도 굉장히 큰 수를 표시하는데서 <0>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수 있다.

인디아의 수학자들은 B. C. 3세기~B. C. 2세기에 1부터 9까지를 서로 다른 기호들로 표시하였다.

약 1500년전에 이르러 그들은 위치체계 즉 기호들을 주산에 있는 렬들에 맞추어놓는 식으로 수자를 기록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였다.

빈줄에 써넣을 기호도 필요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 (0)을 고안해내였다.

이것은 놀라운 성과였다. 사람들은 영이 있으면 계산하기가 매우 쉽다는것을 인차 알게 되었다.

초기에 수자 <0>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점으로 표기되었다. 정확히 언제부터 점이 동그라미로 전환되었는가 하는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876년 이전에 동그라미모양의 수자 <0>이 사용되었다는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876년에 인디아의 어느한 지방에서 <270>의 수자가 새겨진 돌비석이 발견되었기때문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0> 과 관련한 기록중에서 가장 이른시기의것이다.

### 수자의 전파

알 쿠아리즈미라는 사람이 수학과 관련한 책을 씀으로써 인디아수자들과 영이 다른 나라에 전파되었다. 단어 《산수》와 《알고리즘》은 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으며 《대수》라는 단어는 그의 저서에서 유래되었다.

인디아수자들과 령은 새로 형성된 이슬람교제국의 중심지인 바그다드로 전파되었다. 이슬람교제국은 인디아수자와 령이 아프리카에 전파되게 하였다. 락타행렬로 또는 배를 타고 오고간 상인들은인디아식 수자체계를 서쪽으로 전파시켰다.

영국(1100년) 바스지방의 수도사였던 아델리드는 아랍사람으로 가장하고 북아프리카를 령행하였다.

그가 알 쿠아리즈미의 도서들을 번역함으로써 령이 영국으로 들어왔다.

1200년에 인디아수자들은 북아프리카에 와있던 이딸리아상인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1202년에 피보나치라고 하는 이딸리아사람이 《리베르 아바씨》 라는 책에서 그 수자들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밝혔다.

그리하여 인디아식체계가 이딸리아에 전파되게 되었다

인디아수자들이 계산에서 실용적이라는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로마수자들은 유럽에서(1200년) 서서히 밀려났다.

수자 <0>이 유럽에 전파되던 초기 로마법왕은 이것을 이단적인것으로 락인하고 그 사용을 금지시켰다.

천문학책에서 아라비아수자를 보고 <0>의 역할에 대해 크게 탄복한 한 로마학자는 자기의 일기장에 수자기록과 계산에서의 <0>의 우월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마법왕은 그 학자가 하느님이 창조한 신성한 수자를 더럽혔다고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고된 형을 가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박해로도 선진지식의 보급을 막을수 없었다.

수자 <0>은 유럽에 퍼지기 시작하였으며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파급되었다.

새로운 수자들은 현대과학이 출현한 력사적시대인 문예부흥기 또는 《배움의 시대》의 발단을 열어놓는데 기여하였다.

유럽인들은 이 수자들이 고대인디아인들에 의해 발명되었다는것을 몰랐으며 아라비아인들이 만든것으로 잘못 알고 그것을 《아라비아수자》라고 불렀다.



## 단어발음에서의 말소리변화

단어를 발음할 때 형태부의 말소리구성은 말소리들이 놓이는 위치와 결합조건에 따라 일련의 말소리변화를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말소리변화라고 하면 현행의 말소리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어발음에서의 말소리들의 규칙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일정한 력사적시기에 작용하였던 말소리법칙에 의해 맞춤법상으로 고착된 말소리교

체현상들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므로 흔히 말소리변화로 취급하지 않는다.

단어발음에서 생기는 말소리변화들에는 크게 소리바꾸기, 소리끼우기, 소리빠지기, 소리줄이기의 네가지가 있다.

소리끼우기란 단어를 발음할 때 형태부들사이에 본래의 말소리 구성에 없던 말소리를 끼워넣어서 단어의 말소리구성을 변화시키는 말소리변화현상을 말한다.

소리끼우기현상에는 《ㄷ》끼우기, 《ㄴ》끼우기, 《ㅎ》끼우기의 세가지 경우가 있다.

맞춤법에서는 발음할 때 형태부들사이에 끼여들어가는 말소리를 밝혀서 적지 않는다. 그러나 발음할 때에는 끼여나는대로 발음한다.

《ㄷ》끼우기는 두 형태부사이에 막힘소리 [ㄷ] 를 끼워내는 소리끼우기이다.

흔히 막힘소리끼우기라고도 한다.

이 소리끼우기는 주로 모음이나 울림소리로 끝나는 형태부가 뒤에 오는 형태부에 규정적관계로 결합할 때 나타난다.

막힘소리 [ㄷ] 가 순한소리자음의 앞에 끼여날 때에는 막힘소리 뒤에서의 된소리되기에 의하여 뒤의 순한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며 울림소리자음의 앞에 끼여날 때에는 코안소리닿기에 의해 막힘소리가 코안소리 [ㄴ] 로 발음된다.

내-가 [내(ㄷ)가→내까] 문-가 [문(ㄷ)가→문까] 해-살 [해(ㄷ)살 →해쌀]

이-발 [이(ㄷ)발→이빨] 해-님 [해(ㄷ)님→해님] 코-날 [코(ㄷ)날→코날]

같은 조건에 놓이는 형태부들이라도 결합되는 형식이나 나타내는 뜻에 따라 막힘소리가 끼우고 안끼우는데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상적형태부들사이의 규정적결합이 《시공간+대상》, 《용도+대상》, 《표식+대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막힘소리가 끼여나지만 《속성(모양, 재료)+대상》, 《소유자+대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막힘소리가 끼여나지 않는다.

소-고기 [소고기] 해-바라기 [해바라기] 기와-집 [기와집] 해-가림 [해가림]

《ㄴ》끼우기는 형태부들사이에 코안소리 [ㄴ] 를 끼워넣는 소리끼우기이다.

《ㄴ》끼우기는 대체로 뒤의 형태부가 《이(발), 이마, 이야기, 잎, 입, 이불, 이끼, 이슬, 열매, 유리, 약》과 같은 고유어나 또는 고유어화된 한자말들인 경우에 한해서 나타난다.

끼여난 [ㄴ] 앞의 자음이 막힘소리이면 코안소리되기가, 혀옆소리이면 혀옆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덧-이 [던니] 앞-이마 [암니마] 홀-이불 [혼니불] 틀-이 [틀리] 콩-웃 [콩눈]

담-요 [담뇨] 꽃-유리 [꼰뉴리] 물-엿 [물련] 쓴-약 [쓴냐] 낮-익다 [난니따]

《ㅎ》끼우기는 암컷과 수컷을 나타내는 형태부 《암》과 《수》의 뒤에 《ㅎ》이 끼여나면서 여러가지 말소리변화를 일으키는 소리끼우기이다.

《암》과 《수》의 뒤에는 흔히 혀뒤스침소리 [ㅎ] 가 덧끼여 발음된다.

그리하여 이 형태부들의 뒤에 순한소리 《ㄱ, ㄷ, ㅂ》으로 시작되는 형태부가 오면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순한소리들이 거센소리인 《ㅋ, ㅌ, ㅍ》으로 줄어든다.

암-범 [암(ㅎ)범 → 암핼] 암-개 [암(ㅎ)개 → 암개] 수-닭 [수(ㅎ)닭 → 수탁]

오늘 소리끼우기현상은 소극화되어 그 작용범위도 점차 줄어가고있다.

례를 들어 지난 시기에는 《농사일》, 《나라일》, 《나무일》과 같은데서도 《ㄴ》을 끼워내서 [농산닐], [나라닐], [나무닐] 으로 발음하였지만 오늘은 [농사일], [나라일], [나무입] 으로 발음하고있다.



장편소설 **림격정**

홍명희 원작

홍석중 윤색

## 날짐승이 길짐승으로 된 박쥐

(전호에서 이음)

리봉학이 립진별장으로 내려간지 얼마 안되어 김명윤이라는 량반이 평안감사로 임명되었다.

이놈은 임금과 세도재상들에게 퇴물을 바치고 아첨하는것밖에 아무런 학식이나 재주도 없는 놈이다. 이놈이 평안감사라는 높은 벼슬자리에 앉은것도 바로 퇴물과 아첨으로 얻은것이였다.

이놈은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을 보살펴줄 대신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서 임금과 세도재상들에게 퇴물로 바치고 더 높은 벼슬을 따볼가 하는 궁리를 하였다. 우선 백성들의 등껍질을 벗겨서 재물을 긁어놓자면 그런 일에 수완이 있는 민을만한 부하를 골라야 했다.

김명윤은 그런 맞춤형 인물을 찾던중 서림이라는 사람을 고르게 되었다. 서림은 원래 평양사람이 아니라 경기도감영에서 아전노릇을 하던 사람이였다. 사람이 껴가 비상하고 교활한데다가 수단이 좋아서 아전노릇을 시작한지 몇년 되지 않아 술한 백성들의 땅과 재산을 빼앗고 나라 창고에 있는 물건들도 도적질해냈다.

그러다가 경기감사가 임금에게 퇴물로 바치려는 산삼을 도적질한것이 드러나서 죽을번 하였다. 그는 뭉그러두었던 재물을 전부 털어서 퇴물로 바치고 겨우 살아나왔으나 감영에서 쫓겨나고 집에는 무명

한끝 없는 거지가 되고말았다.

그렇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재산을 모을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다. 마침 아는 량반의 소개장을 얻어서 평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줄로 해서 지금 감영안에서 낮은 아전노릇을 하고있었던것이다. 김명윤은 서림을 자기앞에 불러들여다가 이리저리 인끈을 달아보았다.

《네가 경기감영에 있을 때 산삼을 훔친 일이 있다지?》

《네, 황송합니다. 소인에게 그런 일이 있었소이다. 소인의 늙은 아버가 중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의원의 말이 산삼을 반근가량 먹여야 살릴수 있다구 하옵기에 제가 죽을 작정하구 대궐에 바칠 산삼을 가져다가 병든 아버지에게 먹였소이다. 아버가 산삼을 먹구 병은 좀 나아졌으나 소인이 잡혀 갇힐 때 놀라서 죽고말았소이다. 소인이 아전으로 나라 물건에 손을 대였구 자식으로 부모를 죽게 만든것이 실상은 생각 한번 잘못 먹은탓이외다. 하여간 소인은 하늘땅이 용납하기 어려운 죄인이올시다.》 서림은 그럴듯한 거짓말을 눈물까지 흘리면서 주어섬겼다. 김명윤은 그의 말이 정말이든 거짓말이든 미끈한 말재주에 흐뭇해서 만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날부터 명윤은 서림에게 물건 구해들이는 일을 맡겼다.



서림은 이 일을 말자마자 놀라운 수단과 재주를 부려 백성들의 재물을 빼기 시작하였는데 절대로 감사의 이름이 말밖에 오르지 않도록 하였다. 김명운은 차차 서림을 사자가 자기 어금이를 아끼듯 중히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만을 기다리고있던 서림은 굶어들인 재물들중에서 쫄쫄한것을 자기 몫으로 훔쳐내기 시작하였다.

어느날 보물들을 상자에 꾸러넣을 때였다. 서림은 진주보석 다섯개를 훔쳐서 품속에 감추어넣었다. 그런데 일이 안될래라 그가 훔쳐넣는것을 옆에서 일하던 통인이 몰래 보고 감사에게 일러바쳤다. 감사는 눈이 까뒤집혀서 당장 서림을 잡아들이라고 불호령을 놓았다. 요행 서림은 잡히기 전에 먼저 일이 탄로된줄 알게 되어 훔친 보물을 싸들고 도망을 칠수 있었다.

서림은 평양에서 도망하여 무작정 서울을 바라고 길을 걸었다. 도망친지 나흘째 되는 날에 그는 금교역말에 와서 잤다. 이튿날은 눈이 부실부실 내렸다. 그가 금교를 떠나 탑고개를 넘어오는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남자 둘이 나타나서 서림의 깨끗한 옷차림을 유심히 훑어보다가 공손하게 말을 걸었다.

《택은 어디 사시우?》 서림은 그들을 알보고 아주 거드름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평양감영에 있는 사람이야. 주체넘게 길을 막아서서 바쁜 길을 지체시키지 말라구.》

이 말에 두 남자는 당장 얼굴표정이 험악해졌다.

《무어, 평양감영에 있어? 흥, 어쩐지 노린내가 나더라. 보나마나 감영에 앉아서 술한 평안도백성들을 발가먹었겠지.》 한사람이 도끼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말하자 다른 한사람이 서림의 보따리에 손을 댔다. 《이 보따리에 든건 무어나?》 서림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약은 께를 부려 얼른 태도를 공손하게 가지며 대답했다.

《헌 옷가집니다.》 《헌 옷가지? 어디 보자.》 두 남자는 곧 서림의 보따리를 벗겨서 풀었다. 보따리안에는 귀한 털가죽, 보석들, 금은붙이들이 들어있었다. 두 남자는 서림을 죽일것같이 노려보았다.

《이놈아! 이제 헌 옷가지냐?》 《이제 다 평안도백성들한테서 로락질해낸것들이겠지.》

《이런 고약한 놈은 평안도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죽여야 해.》

두 남자는 받고 차며 서림에게 옥설을 퍼붓고는 보따리를 다시 샀다. 이때 서림은 물건도 잃지 않고 빠져나갈수 있는 묘한 수를 궁리해냈다. 그는 씩씩한 어조로 두 남자에게 말했다.

《불것 다 보았으면 이제 보따리를 이리 내우.》 《무어야, 이놈아!》

한 남자가 서림의 언뺨을 보기 좋게 후려갈겼다.

《내 말 좀 듣구나서 때리우.》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가 평양감영인줄 아느냐?》

《이건 내 물건이 아니요.》

《이놈아, 백성들의 등껍질을 발가낸 물건인줄 우리두 안다.》

《물건임자가 찾으러 올 때에는 이렇게 큰소리를 못 치리다.》

《도대체 물건임자가 누구냐?》

《양주사람 립걱정이 이 물건의 임자요.》

서림은 경기감영에 다닐 때 양주사람 립걱정이 유명한 힘장사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었다. 혹시 립걱정의 이름을 대면 효과가 있을것 같아서 한번 해본것인데 과연 두 남자는 그 이름을 듣자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양주 립장사의 물건을 택이 어디루 가져가시우?》 그들의 태도는 다시 공손해졌다. 서림은 자기의 께가 들어맞은것을 보고 만족하여 빙그레 웃었다.

《양주 립장사가 나와 사돈간이요. 내



가 평양감영에 다니니까 손이 넓은줄 믿구 이 물건들을 사달라구 부탁합디다.》

그는 흥이 난김에 척척 거짓말을 하였다. 두 남자는 돌아서서 서로 의논을 하였다.

《어떻게 하자나?》

《동네루 끌구 들어가세.》

《끌구 들어간대두 마찬가지야. 립장사와 사돈간이라는데 손떨수 있나?》

《그대로 보내더라도 두령 한테 말씀을 드리구 보내야지.》

두 남자는 서림을 끌고 탑고개 동네에 들어왔다. 그들이 청석골사람들인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때 청석골에는 량반놈들과 부자놈들의 등쌀에 더는 살수 없게 된 가난한 백성들이 수십명이나 모여들어있었다. 오가, 박유복, 광오주, 길막봉, 배돌석들은 두령이 되어 모여든 사람들로 패를 못고 탑고개를 지나다니는 량반놈들이나 부자놈들의 행차를 습격하군 하였다.

이날은 길막봉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탑고개를 지키러 나와있었다. 막봉은 서림을 잡아가지고 온 두사람으로부터 서림이 립격정의 사돈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곧 서림을 잡아들이었다.

《네 말이 양주의 립장사와 사돈간이란 다니 그 아들은 아직 장가를 안 들었는데 어떻게 된 사돈이냐?》 눈치가 빠른 서림은 물어보는 두령이 립격정과 잘 아는 사이라는것을 짐작하고 가슴이 덜컥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한번 한 거짓말을 달리 꾸밀수도 없었다.

《그런게 아니라 립장사가 우리 사돈의 사촌이올시다.》

《옳지, 립격정이 네 사돈의 사촌이야? 그런데 그에게는 사촌이 없는걸?--》

《의심쩍거든 립격정에게 물어보십시오.》 서림은 끝까지 우길 작정이였다. 막봉이가 서림의 말쑥한 얼굴과 깨끗한 옷차림을 내려다보더니 옆에 선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놈이 평양감영에 다니는 놈이라더니 량반놈들의 덕밀에 붙어서 못된 거짓말부터 배워먹었구나. 저쪽으루 끌구 가서 버릇부터 고쳐줘라.》 막봉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하들중 두사람이 나서서 서림의 어깨죽지를 내끌었다. 서림은 급해맞았다. 그는 막봉에게 애걸했다.

《말씀한마디만 더 들어주시우.》 《무슨 말이냐?》 《제가 보따리를 여기에 두구 양주에 가서 립격정을 데리구 올테니 제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립격정에게 물어보십시오.》

막봉은 곧 서림의 교활한 속심을 알아차렸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불호령을 내렸다.

《이놈아, 그래 우리가 네간놈의 그 더러운 물건짜이 욕심나서 그러는줄 아느냐? 잔꾀가 말짱한 놈 같으니라구. 물건을 두구 간다면 우리가 손쉽게 놓아줄줄 알구 거짓말을 하는 모양이다만 그만둬라. 버릇을 배운 후에 네 보따리를 그대로 돌려줄테니 그때 가지구 가거라.》

이 말을 들으니 서림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마지막수단으로 도망을 쳐보려고 했다. 그러나 몇발자국 달아나지 못해서 붙잡히고말았다. 청석골사람들은 분김에 서림을 가운데 몰아넣고 두들겨패기 시작했다. 이때 작은손가가 달려와서 매맞는 서림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청석골사람들을 말렸다

《여보게, 이 사람은 우리 집의 은인일세. 내가 가서 두령에게 말하구 나올테니 잠간만 참아주게.》

작은손가는 막봉에게 뛰어가서 말했다.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줍시다. 그 사람이 우리 형님의 은인이요.》 《그자가 누구데?》

《경기감영에서 아전노릇을 하던 서림이란 사람이요.》

《옳지. 나두 서림이란 이름을 전에 들은 생각이 나는군.》 막봉은 고개를 끄덕



이었다. 몇해전에 큰손가는 광주 분원이 라는 곳에서 사기를 굶는 일을 했다. 그때 어떤 사기쟁이 하나가 빗단련에 견디다 못해 목을 매고 죽었다. 판가에서는 이 기회에 사기쟁이들의 가난한 밑천을 훔아낼 작정으로 술한 사람들을 살인죄로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큰손가도 그 통에 걸려 옥에 갇혔다가 서림에게 재산을 털어버치고 놓여나왔던것이다.

막봉은 서림을 은인이라고 하는 작은손가의 말을 듣고 통을 주었다.

《그놈이 당신네 형제를 알거지루 만들었는데 은인은 무슨 말라비틀어진 은인이야?》

《어쨌든 죽을 사람을 살려주지 않았소?》 <어리석기두 하오.》 막봉과 작은손가가 이야기를 나누고있을 때 큰손가의 안해까지 뛰여와 서림을 은인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놓아달라고 말했다. 막봉은 누님의 말까지 꺾기가 어려워 서림을 그대로 놓아주고말았다. 뜻밖에 작은손가를 만나 죽기보다 더 무서운 매를 면한 서림은 그의 집에 와서 하루밤을 지냈다.

그는 그날밤 꼼꼼히 생각해보았다.

한세상을 편안히 살자면 무엇보다 재산과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서림의 처지로써는 다시 감영의 아전노릇을 하며 백성들의 등을 쳐먹고 살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길지도 못한 일생을 거지처럼 두메산골에 파묻혀 살기도 싫었다. 그렇게 살바에는 차라리 청석골사람들에게 불어서 한몫 보는것이 나을것 같았다.

다음날 서림은 작은손가에게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고나서 자기를 청석골에 받아만 주면 평안감사 김명윤이가 서울에 올려보내는 물건들을 빼앗을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청석골의 두령들은 서림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창 흉년으로 근처의 가난한 백성들이 굶어죽게 되었을 때여서 큰재물을 빼앗을수 있

다는 말을 그냥 흘려들을수가 없었다. 청석골의 두령들은 서림을 불러서 만나보았다. 오가가 먼저 물어보았다.

《로형이 평안감사놈의 큰 재물을 우리가 빼앗을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소?》

《그게 지금은 평양감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설달보름안에 서울로 올라갑니다.》《평안감사놈이 서울에 올려보내는 물건이래야 기껏 평안도에서 나는 물건들이 아니겠소? 그게 무슨 그리 요란한게라구 큰 재물소리를 하우?》

이 말에 서림은 김명윤이 감사자리에 앉자마자 굶어모은 보물들의 이름과 가지수를 쪽 이야기했다. 청석골두령들은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저런, 그놈에게 그렇게 꺾질을 벗기우구도 평안도사람들이 아직 숨이 붙어있소?》 《그간놈의 물건 빼앗는건 걸어치우구 우선 감사놈을 붙잡아다가 그곳 백성들의 한풀이를 해야겠소.》 두령들은 제각기 한마디씩 하며 주먹을 부르짖었다. 다음날 청석골의 두령들은 한자리에 모여 두가지 일을 의논하였다. 한가지는 김명윤이 서울에 올려보내는 물건을 빼앗자는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서림을 청석골에 받아들이는것이였다.

첫 문제는 의논이 일치해서 인차 결말을 지었지만 서림의 문제는 꺾오주가 반대하여 락착을 지을수가 없었다. 꺾오주는 누가 무어라고 하든 막무가내였다.

《참 답답들 하시우. 그런 놈을 청석골에 받아들이면 이제 꼭 화집이 터질게요. 날짐승노릇을 했다, 길짐승노릇을 했다 하는 박쥐같은 놈을 어떻게 민구 생사를 같이 한단 말이요? 그놈이 웃을 때 눈을 살살 내리감는걸 보지 못했소?》 결국 여러 두령들은 꺾오주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김명윤의 물건을 빼앗은 뒤에 그 문제를 다시 의논하기로 하였다.

(다음호에 이음)



## 단고기국

1. 단고기는 큰 토막으로 잘라 가마에 안치고 물을 부어 끓인다.  
처음에는 불을 세게 하였다가 끓기 시작하면 거품을 걷어내고 약한 불에서 끓이면서 차조기잎(또는 방아풀)을 넣어 비린내를 없앤다.
2. 고기가 익으면 뜯어서 파, 닭은 깨(들깨 또는 참깨), 고춧가루, 데친 미나리, 후춧가루, 소금을 넣고 무친다.
3. 기름과 껍질은 삶아 보드랍게 다져서 고춧가루, 파, 닭은 깨, 소금을 넣고 양념즙을 만든다.
4. 그릇에 단고기를 담고 양념즙을 조금씩 친 다음 간장과 고추장을 풀어 넣은 국물을 붓고 파와 후춧가루를 쳐서 낸다. 국물에 간장을 두지 않고 소금을 쳐서 먹기도 하는데 지방마다 다르다.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 힘차게 부르자!**  
**LET US SING LOUDLY THE SONG OF INDEPENDENCE, PEACE AND FRIENDSHIP!**